

해외 투기자본, 韓기업 77곳 습격… ‘경영권 방패’ 입법 시급

〈지난해〉

스페셜 리포트

한국 기업을 먹잇감으로 삼는 외국 투기자본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을 무산시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은 한국가를 부도 상태로 몰아넣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괴물이 된 지 오래다.

▶관련기사3면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에게 의뢰해 작성한 ‘주주행동주의 부상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한국 기업 수는 2019년에 비해 9.6배로 증가했다. 2019년 8개사에서 지난해 77개사로 5년 연속 증가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행동주의 캠페인 타깃이 된 기업 수가 많다.

보고서는 특히 그동안 행동주의 펀드가 선봉장에서 주장했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가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은 그럴듯한 명분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일본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지난달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 인베스트먼트가 일본 방송사 후지 미디어홀딩스에 경영권 인수를

행동주의, 지배구조·합병 ‘발목’
美·日 이어 전세계 세번째 타깃
정부 정책 더해지며 명분도 얻어
여러 펀드 연대해 기업들 압박
“차등의결권·포이즌필 서둘러야”

통해 그룹을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달튼 인베스트먼트는 2019년 한국 정부와 의회에 △자사주 매입 시 자동 소각 △은행 금융지주사의 낮은 주주환원 개선 △의무 공개매수 제안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는 공개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에 따르면 일본에서 비상장 전환한 기업 수는 2015년 47개에서 2022년 135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칼라일그룹은 행동주의 펀드 공격 강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장기 성장보다 이벤트 전략을 앞세워 단기 주가 상승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본질이 희미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주주행동주의가 더욱 힘을 얻어 왕성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늑대가 떼를 지어 사냥감을 공략하는 것처럼, 여러 개 펀드가 연대해 하나의 기업을 먹잇감으로 삼는 ‘울프 팩(wolf pack·늑대 무리) 공세’가 본격화할 움직

주요 국가별 경영권 방어 수단 유무
※출처 : 한국경제인협회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차등의결권	창업자 등의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 부여	X	O	O	O	O
포이즌필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보장	X	O	O	X	O
황금주	주식 한 주만으로 주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 행사	X	O	O	O	O

임도 보인다. 삼성물산은 올해 초 시티오브런던인베스트매니지먼트, 팰리서캐피털, 화이트박스어드바이저스, 안다자산

운용과 같은 국내외 운용사들로부터 주주환원 강화 요구를 담은 주주서한을 받기도 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라자드에 따

르면 지난해 1분기 시작된 전 세계 69건의 행동주의 캠페인 가운데 49%가 울프 팩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한다. 주주환원과 경영권 방어 부담이 늘수록 비용 발생도 높고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선진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일반 주보다 많은 의결권 부여)이나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두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여름엔 바다로”… 해수욕장 순차 개장

한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자 서해안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을 하고 있다. 인천 중구 왕산·율왕리·하매해수욕장,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등 서해안 일부 해수욕장이 22일 개장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 23일 인천 중구 율왕리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백사장을 거닐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기업 R&D 투자, 작년 72.5조… 상위 10곳 63%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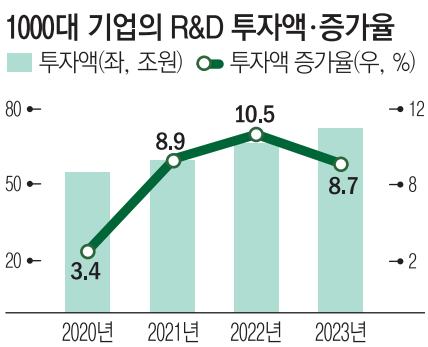
〈전년비 8.7% 증가〉

산업부·KIAT, 1000곳 조사
매출 2.8% 감소에도 R&D 늘려
삼성전자 등 9곳 1조 이상 투자

지난해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액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8.7% 늘어난 7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개 기업의 투자액은 45조5000억 원으로 62.7%를 차지했고, 삼성전자 1개 기업의 R&D 투자액이 23조9000억 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023년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스코어보드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대상 기업은 올해 3월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대상상장기업 및 기타외감법인 중 2023년 개별 감사보고서상 국내 R&D 투자액 상위 1000대 기업이다.

주요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8% 감소했으나, R&D 투자액은 전년 대비 5



조8000억원(8.7%) 늘어난 72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3.9%에서 4.4%로 증가해 국내 R&D 투자를 견인했다.

눈에 띄는 점은 R&D 투자의 상위 기업 몰림 현상이다. 투자 규모 상위 10대 기업이 총 45조5000억 원을, 50대 기업이 56조6000억 원을 투자해 각각 1000대 기업 전체 R&D 투자의 62.7%, 78.1%를 차지했다. 1조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기아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삼성SDI 등 9개 기업이다. 특히, 삼성전자 투자액은 2~10위 기업의 전체 합계인 21조6000억 원보다 많은 23조9000억 원으로 전체 R&D의 3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액 상위 1000대 기업에는 대기업 171개, 중견기업 491개, 중소기업이 338개 포함됐다.

중견기업은 2014년 407개와 비교해 84개 늘었고, 상위 100대 기업에 33개 중견기업이 포함돼 혁신생태계에서 점차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중에서는 엔씨소프트(4671억 원·17위), 한국항공우주산업(4088억 원·19위), 중소기업 중에서는 리가캠바이오 사이언스(797억 원·69위)가 가장 많이 투자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1000대 기업 R&D 투자액 72조5000억 원은 2022년 기준 중국 679개 기업투자액 301조 원의 약 4분의 1, 미국 827개 기업 투자액 715조 원의 약 10분의 1에 그친다. 국내 1000대 기업은 R&D 투자를 지난 10년간 연평균 6.6% 이상 확대해 왔으나, 2022년 기준 글로벌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47개에 불과했다. 미국(827개)과 중국(679개), 일본(229개), 독일(113개)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대만(77개)에도 뒤진 9위를 기록했다. 50위권에는 삼성전자(7위)만 포함됐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알림

‘서울 기후-에너지회의 2024’ 개최합니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7일 ‘서울 기후-에너지회의(CESS) 2024’를 엽니다.

‘녹색건축활성화와 빌딩 넷제로 솔루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녹색 건축 분야의 전문가, 정부 관계자, 산업 리더 및 학계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녹색 건축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켈리 앨버레즈 도란(Kelly Alvarez Doran) 하프(half) 기후설계(Cli-mate Design) 공동창업자, 박덕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로에너지빌딩센터장, 졸트 로랜드 토트(Zsolt Lorand Toth) 유럽건축성능연구소(Building Performance Institute Europe) 팀장, 김중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ICT연구단 책임연구원,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진성 누리플렉스 사업대표, 이주영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관과장,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성우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 등이 기조연설과 세션토론에 나섭니다.

스마트 녹색 건축 활성화를 위한 시장 동향과 건물 환경 및 기술 융합 현황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주 제: 녹색건축활성화와 빌딩 넷제로 솔루션
- ◇ 일 시: 6월 27일(목) 14:00~17:30
- ◇ 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 ◇ 주 최: 이투데이
- ◇ 후 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서울특별시
- ◇ 참가신청: <http://www.cess.co.kr>
- ◇ 문 의: 02-799-2683 / (재)기후변화센터 02-766-4366

“귀하와 함께할 수 없어 죄송...” 삶 굶는 ‘신 청년’ 급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청년 고용’이 19개월째 감소 중인 가운데 지난달 청년층 상용직이 19만 명 감소했다. 청년층에서 고용의 질을 대표하는 상용직이 20만 명 가까이 급감한 것은 최근 10년 사이 처음이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도 다시 늘고 있다.

2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5월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총 23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보다 19만5000명 줄었다. 이는 마이크로데이터가 작성된 2014년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청년층 인구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작년 5월(-1만 명)보다 감소 폭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5월 기준 2020년 224만 9000명이던 청년층 상용직은 2년 연속 증가해 2022년 255만8000명까지 늘었지만, 작년 254만8000명으로 감소한 이후 올해까지 2년째 줄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청년층의 상용직 감소세가 가팔랐다. 60세 이상에서는 1년 전보다 20만4000명 늘었고, 30대와 50대도 각각 9만3000명, 6만4000명 증가했다. 40대는 9만1000명 줄었지만 청년층 감소 폭의 절반 수준이었다.

청년 고용은 전체적으로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달 청년층 전체 취업자는 383만2000명으로 작년보다 17만 3000명 줄었다. 2021년 1월 31만4000명 줄어든 뒤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5000명)부터 1년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자는 27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000명 증가했다. 2022년 9월(3만5000명) 늘어난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다.

‘쉬는 청년’도 9개월 만에 다시 늘어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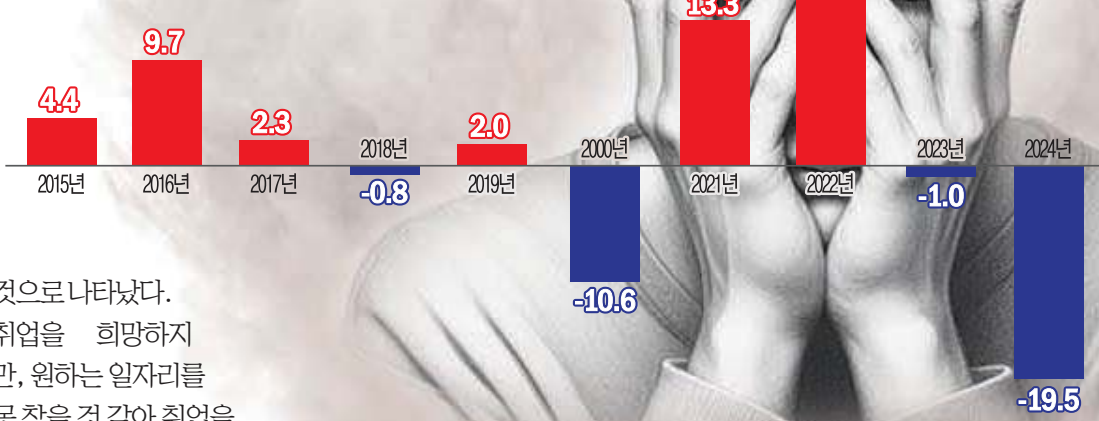
청년 상용직 19만명 ↓ ... 통계이래 최대

양질 일자리 감소로 구직 의욕도 하락

‘그냥 쉬’ 40만... 9개월 만에 도로 증가

‘구직 단념자’도 올해 12만명 훌쩍

청년층 상용근로자 증감
(단위: 만명, 전년 동월 대비,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 출처: 통계청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희망하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못 찾을 것 같아 취업을 접은 ‘구직 단념’ 청년도 다시 증가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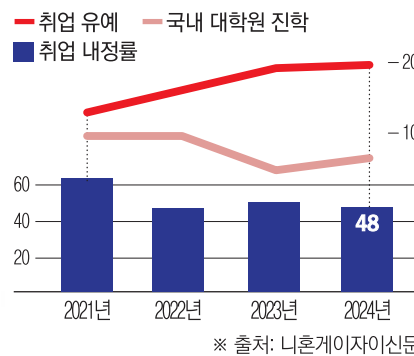
지난달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은 1년 전보다 1만 3000명 늘어난 39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그냥 쉬다”고 답한 이들이다.

지난달 ‘쉬었음’ 청년은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2020년(46만2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전체 청년인구에서 ‘쉬었음’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1년 만에 4.6%에서 4.9%로 늘었다. 청년 인구가 줄었음에도 ‘그냥 쉬’ 청년은 늘어난 탓이다.

‘쉬었음’ 인구 중 청년들은 구직 의욕이 높고 직장 경험도 있는 이직자들이 많지만, 적성 불일치 또는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상당수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지난해 줄어든 ‘구직 단념’ 청년이 올해 다시 증가세인 점은 이런 현실과 맥이 닿아 있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원하고 취업할 수 있었지만, 임금수준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 취업을 단념한 구직 경험자들이다. 올해 1~5월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12만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8525명)보다 약 1만 1000여 명 늘었다. 전체 구직단념자(38만7000명)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다.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1~5월 기준으로 2022년 13만6808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약 3만 명 줄었지만 올해 다시 늘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중국 대학 졸업 예정자 진로
(단위: %, 매년 4월 중순 시점 기준)



中청년 졸업하면 뭐하나 둘 중 한명은 ‘취업 미정’

“7월 청년실업률 20%로 치솟을 수도”

중국이 이달 졸업 시즌을 맞이했지만, 청년들의 취업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은 23일 중국 인재 컨설팅 회사 즈렌 자오판을 인용해 중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절반 이상이 졸업 시즌을 불과 두 달여 남긴 시점에서 취업처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4월 중순 기준 대학·대학원생의 취업 내정률은 1년 전보다 2.4%포인트(p) 하락한 48%에 그쳤다. 이 수치가 50%를 밑도는 것은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도시 봉쇄로 경제가 혼란에 빠졌던 2022년 봄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까지 평균 내정률이 75% 안팎을 기록하던 것과 비교하면 취업 문이 바늘구멍만큼이나 좁아진 셈이다.

청년들은 취업의 좁은 문턱을 넘기 위

해 스펙을 쌓고 가방 끈을 길게 늘리는 반면, 기업들은 불안한 경기 전망에 채용을 축소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IT, 부동산, 학원 등 3대 업종이 청년 고용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과점시장 해소와 거품 제거를 명분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실적이 나빠진 기업들은 채용을 줄였다.

이에 따라 6월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올여름에는 중국 청년실업률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16~24세 청년실업률 조사 대상에는 대학 재학생이 포함되지 않지만, 이들이 졸업 후 구직활동을 이어가게 되면 7월부터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니시하마 도오루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여름철 중국 청년실업률이 4%p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5월 14.2%였던 청년실업률이 6월까지 보험세를 유지한다면 7월에는 20% 가까이 치솟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분묘개장공고(2차)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4-107 호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사업부지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처리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 분묘의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지 번	기 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38-1, 1130-5, 1130-6, 산214-4, 707-11, 1155-2, 산124-1, 산127, 산127-2, 산134-7	17기

■ 개장 대상 분묘기수 : 유·무연분묘 17기

■ 개장사유 :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지구 내 편입

■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 개장 후 안치장소 :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소재 납골당

(추후 납골당 등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신고장소 :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63 ☎052-715-3443),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061-338-6145)

■ 신고요령 : 연고자(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사 업 시 행 자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AI·반도체·로봇 ‘미래 협력’ 강화… 북미로 뛰는 재계 총수

현장경영 행보 잇따라

이재용 이어 구광모·최태원 방미
그룹 우려 불식·경쟁력 제고 의도
李, 2주간 빅테크 CEO 연쇄회동
具 “빅스텝으로 도전·도약” 당부
崔 ‘AI 생태계’ 협업 모색 계획

재계 총수들이 북미 현장 경영 행보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협력사들과의 관계를 다지는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직접 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와 함께 그룹 안팎의 각종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23일 LG에 따르면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17일(현지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테네시와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북미 현지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미래준비 현황을 살폈다.

구 회장은 미국 테네시에서 LG전자 생산법인, LG에너지솔루션·GM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등을 방문했다. 그는 현장 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2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주 북미를 방문했던 구광모(왼쪽) LG그룹 회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로봇 개발 스타트업 ‘피규어 AI’를 찾아 휴머노이드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LG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내달 초까지 미국에 머물며 빅테크 파트너사를 만나 ‘AI 생태계’ 협업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데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5월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2주간 미 동·서부를 횡단하며 메타, 아마존, 퀄컴, AMD 등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연쇄 회동했다. 특히 이 회장은 메모리, 파운드리 부문의 기존 고객사와 협력 확대에 힘을 쏟았다. AI 등 첨단 분야에서 삼성과 고객사의 기술 경쟁력을 결합해 모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재계 총수들의 이 같은 행보에는 그룹 안팎에 불거진 우려를 없애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은 고대역폭 메모리(HBM)에서 경쟁사에 1위를 뺏긴 이후, 반도체 사업에서 위기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SK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200개가 넘는 과도한 계열사 정리가 시급하다. LG그룹은 가전 외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 안팎의 위기감 속에서 활발한 대내외 활동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문 중 직원들과 만나 “지속성장의 긴 레이스에서 이기기 위해 도전과 도약의 빅스텝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고객 트렌드, 경쟁 구도, 통상 정책·물류 등 사업 환경의 변동성은 모두가 동일하게 마주한 상황”이라며 “차별적 고객 가치 제공을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공급망 구축, 공정 혁신, 현지화 역량 등 근본 경쟁력을 높여 다시 한번 도약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테네시 점검에 이어 구 회장은 실리콘밸리에서 미래사업 분야를 살폈다.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격전지이자 스타트업의 메카로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이 가장 치

열하게 논의되는 지역이다.

구 회장은 “신사업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솔루션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결국 변함 없는 성공의 키는 차별화된 고객 가치에 달려 있다”며 “성공 사례를 만들어 더 많은 스타트업과 파트너들이 LG를 찾아오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지속 발전되어 나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실리콘밸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AI 스타트업도 찾았다. AI 반도체 설계업체 ‘텐스토먼트’와 AI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를 방문해 반도체 설계부터 로봇 등 다른 분야에 이르기까지 AI 밸류체인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구 회장의 외부

AI 스타트업 방문은 AI가 향후 모든 산업에 혁신을 촉발하며, 사업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행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 회장은 내달 초까지 장기간 미국에 머물며 빅테크와 파트너사를 만난다. 최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SK그룹의 ‘AI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하는 지역 또한 빅테크들이 모여 있는 ‘실리콘밸리’에 국한하지 않고, 현지 파트너사들이 있는 미국 여러 곳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AI 및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전기차 산업 현장인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 전기차에 탑승해 송호성 기아 사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崔 “전기차 캐즘 극복, 구매·투자인센티브 지원”

기아 광명공장서 현장간담회 열어 “전기차 전환 방향성은 지속될 것”

정부가 전기차 산업의 캐즘(넒리 사용되기 전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하는 현상) 극복을 위해 구매 혜택, 투자 인센티브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개선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전기차 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찾아 관련 업계·협회·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측에서는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관계 국장들이, 업계 측에서는 송호성 기아 사장, 김동욱 현대차 동차부사장,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

차에 대한 안전 우려가 과도하게 형성돼 있는 만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로 일몰되는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을 비롯해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후 배터리 통합 지원체계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전기차 전환의 방향성은 지속될 것”이라며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자 투자·일자리 등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인 만큼 시장 둔화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전기차 구매 혜택, 투자 인센티브를 비롯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을 포함해 충전 인프라 고도

화, 사용후 배터리 산업 통합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을 건의했다. 과도하게 형성된 전기차 안전 우려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4일 조선산업 현장인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을 찾아 미래형 선박 연구개발 동향을 점검했다.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신건수 나드마린 대표, 김진국 선진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친환경 인재 양성,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선박 건조 공정 스마트화(스마트 야드) 확대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재 양성센터를 신설하고 친환경·디지털 선박 기술개발도 대폭 확대하며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조선업이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가보니 한강대교 위 호텔 ‘스카이 스위트’

한눈에 펼쳐진 ‘한강뷰·서울 야경’ 감탄 절로~ “소파·LP·책… 취향대로 즐겨요”

서울 여의도부터 노들섬까지 이어지는 한강의 멋진 풍경을 한눈에 조망하고, 도시의 야경도 즐길 수 있는 호텔 ‘스카이 스위트’가 다음달 시민들을 찾아온다. 한강대교 북단에 있는 전망가 페를 리모델링한 호텔은 최대 4인이 입실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요금은 1박에 30만~50만 원 선에서 이달 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23일 서울시와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다음달 16일 한강대교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이 정식 오픈



서울 한강대교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의 침실(위)과 거실. 사진제공 서울시

내달 1일부터 에어비앤비서 예약
1박 30만~50만원… 내달 16일 오픈
“서울 매력 알릴 수 있는 기회 기대”

폰한다. 숙박예약은 다음달 1일부터 에어비앤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호텔 스카이 스위트는 한강대교 상부에 있는 직니커피를 리모델링해 선보인 숙박 공간이다. 호텔은 144.13㎡(약 44평) 규모에 침실, 거실, 욕실, 간이 주방을 갖췄으며 최대 4명까지 입실할 수 있다. 이번 스카이 스위트는 서울시의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에어비앤비와 함께 기획하고 제작해 탄생하게 됐다.

20일 방문한 호텔 스카이 스위트에선 한눈에 펼쳐진 한강의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호텔 내부는 올해의 서울색인 스카이크랄색과 한강 등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다채로운 색감으로 꾸며졌다. 실제로 침대와 소파, 거실 내 책장 등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스타일리스트가 서울을 방문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완성했다.

침실 내에는 침대 옆 2개의 통창, 거실에는 벽면과 천장까지 총 3개의 통창, 욕실에도 1개의 창문이 있어 탁 트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침실 안에서는 노들섬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한강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다. 거실은 폭신한 소파와 함께 1200여 장의 LP, 책 등을 배치해 투숙객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호텔 천장은 유리로 마감돼 밤이 되면 서울의 야경도 감상할 수 있다.

시와 에어비앤비는 이번 스카이 스위트 오픈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더욱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2027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김재빈 기자 chaebi@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羅 “이기는 당 만들것” 韓 “당정 수평적 관계로” 元 “원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사표

7·23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23일 국민의힘 주요 당권 주자들이 잇달아 당 대표 출마선언을 했다. 나경원 의원은 ‘무(無) 계파·이기는 정치’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관계 재정립’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팀’을 강조했다.

이들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2027년 대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을 두근입장이 갈렸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들이 가진 의구심을 풀어 드려야 한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반면,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은 수사가 마무리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 여부도 입장은 나뉘었다. 나 의원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못 박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누구든 상대 당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신망을 얻는다면 대선에 나와야 한다”고 했고, 원 전 장관도 “2~3년 뒤 일은 국민들이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나 의원이었다. 그는 “저는 계파도 없고, 양금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의힘에는 훌륭한 대권 주자가 많다”며 “당 대표는 묵묵히, 대권 주자를 빛나게 해야 한다. 계파가 없고, 사심이 없는 제가 그 적임자”라고 말했다. 또 “승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겨 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며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해당 발언이 4·10 총선을 이끈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알아서 해석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건 한 전 위원장이었다. 그는 “지난 두 달간 복기와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고심 끝에 오랫동안 정치

대선 도전 여부

나 “출마 안해 묵묵히 지원할 것”
한 “누구든 신망 얻으면 나와야”
원 “국민들이 불러주느냐에 달려”

채상병 특검법

한 “국민 의구심 풀기 위해 발의”
나·원 “수사 마무리 후 판단해야”

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를 언급하며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며, 그러기 위해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럴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들이 반복됐다. 단호하게 민심의 길로 견인해야 한다”며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원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다. 저는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대선 공약을 책임졌고, 경제부처 장관으로 국정에 참여했다”며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며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레드팀을 만들겠다”고 외쳤다. 그는 “반윤(반윤석열)은 한동훈, 친윤(친윤석열)은 원희룡”이란 말이 있다”는 질문에 “우리는 모두 여당이고, 과거가 어떻든 저를 지지하는 사람은 친원(친원희룡)이자 원팀”이라고 답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23일 나경원(왼쪽 사진부터 출마 발표순)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북·러 밀착에 新냉전 고조 尹정부 ‘균형외교’ 시험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과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다. 신(新)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북·러 밀착을 견제하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면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할 장비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무기를 북한에 준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나. 국민 여론도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은 러시아 측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서 북·러 군사협약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를 밝힌 데 이어

러시아에 재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북·러의 신냉전 구도 등 양극체제 갈등과는 선을 긋고 있다.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 경우 북·러 밀착의 빌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핵개발의 명분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등 균형외교의 필요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는 핵개발 등 자국 이익을 위해 신냉전 구도를 강조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외교 전략을 펼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북·러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현안이 다음달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 정상들을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했다. 북핵 위협과 북·러 관계 등에 대한 국제사회 해법을 두고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민 기자 oin@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와 인사교류 추진하다 ‘잡음’

기재부 4급·지자체 5급간 교류
인사 적체 해소용이란 비판 나와
전공노 “지자체 희생 강요 말라”
기재부 내부서도 “임시처방” 비판

기획재정부가 고질적인 인사적체 타개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잇따른 반발에 잡음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의 인사교류 핵심은 내부 4급 서기관과 지자체 5급 사무관 간 교류인데, 일부 지자체는 이를 예산권을 쥔 기재부의 ‘갑질’로 보고 있다.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교류가 근본적인 인사적체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제부처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초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인사교류를 제안하고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국 시·도에 파견된 재정협력관(4급)과 별도로 기재부 소속 서기관을 각 지자체로 보내고 해당 지자체 사무관을 받겠다는 것. 표면적으로 1대 1 교류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기재부 인사적체 타개용 교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지적이다. 앞서 경기·대구·강원·전남·전북 공무원노동조합 등이 규탄 성명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관련 성명에서 “기재부는 소속 간부 4급 승진을 위해 지자체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지자체 4급 한자리를 기재부 공무원이 차지하면서 생기는 승진 적체와 인사 혼란 문제는 누

가 책임지나. 기재부 승진은 기재부 스스로 해결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예산협의권을 무기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 약점을 노린 기재부의 인사 갑질에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기재부와 인사교류 논의를 중단했다는 한 지자체 인사담당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중단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지만 기재부가 ‘(4급) 직위를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어렵다고 했다. 다른 시·도도 많이 반발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기재부의 인사적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기재부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통상 13~1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타 부처가 동일한 직급 승진에 약 8~10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이

는 기재부 부이사관(3급) 승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베테랑 기재부 서기관 중에서는 과장 보직만 8번 이상 거친 인사도 있다. 최근 승진한 행정고시 출신 기재부 A 서기관은 입직 후 첫 승진까지 햇수로만 15년 걸렸다. A 서기관은 “일은 엄청 많이 하는데 난 계속 사무관이고, 비교적 일을 느긋하게 하는 부처 동거나 후배가 과장 자리에 앉은 걸 보고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다”며 “그렇다고 여기서 일을 적당히 하면 좋은 자리를 주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인사교류 논란에 대해서는 “지자체 어디에 자리를 만들어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건 임시 처방, 언발에 오줌 누기”라며 “50~60명씩 있는 기수도 있는데, 서기관 승진은 1년에 그 절반 규모만 한다. 해결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B 서기관은

“이해관계가 맞아 교류한다면 괜찮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기수에 맞춰 부처별 승진 할당 정원(TO)을 부여하는 소위 ‘통합정원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교류와 내부 인사적체는 무관하며, 지자체에 어떠한 압박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인사담당자는 “인사적체는 전혀 관계없다. 만약 관계가 있었다면 (지자체를) 독려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전혀 없었다”며 “주요 보직 과장에 기재부 공무원을 맡길 일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자체 공무원을 기재부에 보내 역량을 키우기를 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7주 내내 떨어진 기름값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폭이 주춤하며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6월 16일~6월 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ℓ)당 1648.7원으로 직전 주 대비 6.0원 떨어졌다. 23일 오전 서울 시내의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쌀값 하락 막으려... 재배면적 2.5만ha 감축

생산량 5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측
올해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 대비 2만 5000헥타르(ha)까지 줄어들고, 쌀 생산량은 5만 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이 68만3000~68만9000ha로 전망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쌀 작정 벼 재배면적 목표인 69만9000ha보다 약 1만ha가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70만8000ha와 비교해서는 최대 2만5000ha가 줄어든다. 농식품부는 2월부터 4개월 동안 지역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산지 쌀값 하락세 지속 등을 감안해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했다. 이에 전라작물 직불제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통해 2만 2881ha, 농지은행 매입 1827ha, 농지전용 7400ha 등 3만2108ha의 벼 재배 감축

면적이 접수됐다. 이 같은 추가 감축은 전라작물직불지원대상 품목을 기존 논콩에서 완두와 녹두, 잡두, 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제, 옥수수 등으로 확대했고,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도 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 결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재배면적 추가 감축을 통해 올해 5만 톤 이상의 쌀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정부는 식량원조용으로 2023년산 쌀 5만 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벼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쌀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여름철 태풍과 장마, 가뭄 등 재해 대응 및 신속한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안정 생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제조업 숨고르기... 업황·내수·수출 전망 ‘뚝’

산업연, 7월 업황 살펴보니

반도체·車 등 전월보다 전망 흐려
디스플레이는 개선세 좋을 것으로

상반기 쉽없이 달렸던 제조업이 7월에는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가 바라본 제조업 업황과 내수, 수출 전망이 모두 기준치를 넘었지만,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산업연구원은 6월 10~14일 13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Professional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7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10으로, 전월 대비 소폭 줄었지만 7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은 웃돌았다고 23일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7월 업황 전망 PSI는 110을 보여 6월 114와 비교해 4포인트 줄었다. 기준치를

7월 업종별 경기 전망 ☀️ : 115 이상 ☁️ : 100~115 미만 🌧️ : 85~100 미만 🌧️ : 85 미만

	업황	내수	수출	생산수준
제조업 전체	110	102	119	114
반도체	167	156	161	156
디스플레이	119	100	125	113
기계	95	95	84	95

넘어 업황은 개선됐지만, 전월보다는 개선세가 약하다는 의미다. 내수 역시 102로 전월(109) 대비 7포인트 줄었고, 수출의 경우에도 119를 기록해 전월보다 6포인트 감소했다. 생산 역시 114로 기준치를 웃돌았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3포인트 줄었다. 업종 유형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 123을 기록해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으나 전월 대비로는 3포인트 줄었고, 소재·부품 역시 109로 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기계 부문의 경우 98을 기록해 전월 대비 7포인트 줄며 기준치를 하회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167로 기준치를 훌쩍 넘었으나 전월 대비로는 18포인트 줄었다. 자동차 역시 100으로 전월과 비교해 11포인트 감소했으며, 조선도

100을 기록해 6포인트 줄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119를 보여 전월 대비 13포인트 늘었으며, 철강의 경우에는 80을 기록해 기준치를 밑돌았지만, 전월 대비로는 5포인트 올라 개선의 희망을 보였다. 한편, 6월 제조업 업황 현황 지수는 110을 기록하면서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8포인트 줄었다. 내수와 수출 역시 각각 103과 123으로 4개월 연속 기준치를 동반 상회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하락 전환했다. 다만 생산은 116을 보여 전월 115와 비교해 1포인트 올랐다. 투자(106)와 재산성(112)은 전월과 비교해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반도체 생명수’ 초순수 연구센터, 2030년 가동

환경부, 지자체에 시설 부지 공모
공업용수 등 조건 6개 충족해야

환경부가 ‘반도체 생명수’로 불리는 초순수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위해 산업 연구시설 부지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초순수 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끄는 복합 기능 연구시설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2030년 개관한다. 신속한 초순수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환경부는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의 향서를 받은 후 신청 요건의 적합 유무와 평가 기준에 따라 최적의 입지한 곳

을 선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입지 조건 부지는 △건물 바닥면적 1만7664㎡ 확보 가능 △공업용수 하루 3120㎥ 확보 가능 △전기용량 월 1만300kW, 전력량 492만4155kWh 사용 가능 △폐수배출시설 1종 시설 설치 가능 △2027년 이전 착공 가능 △점단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또는 반도체 제조 사업장과 30km 이내 지역 등 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센터는 소재·부품·장비 시험센터, 초순수 실증설비(플랜트), 분석센터, 폐수재이용 기술센터, 연구개발·기업지원·인재양성센터 등을 포함하는 5개 시설로 구성된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 각 공정에서

세정에 사용된다. 초순수를 생산하려면 물속에 포함된 불순물의 농도를 극히 낮은 값으로 억제하는 최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초순수 생산기술을 해외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유치하면 해당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국가 초순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AI에 바라는 게 있나요?

"세상의 모든 질병,
거침없이 날려버려!"

LG의 AI기술은
건강한 삶 속에서 모두가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AI연구로 신약개발의 속도를 높여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이주영 선수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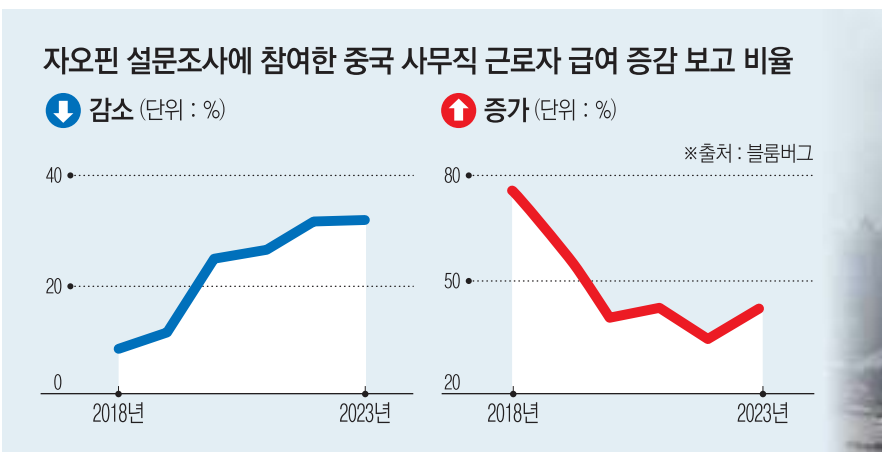
中 잇단 ‘묻지마 칼부림’… 경제 불안이 화근이었다

작년 직장인 32% 급여 깎이고
부동산 부진 탓에 시위 빚발
증시 폭락·실직 등 불안 고조
폭력사건 범인 대부분 전과無
“경제 압박에 정신 건강 악화”

최근 중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이례적인 흉기 난동 사건들의 배경에 경제에 대한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 50대 남성이 19일 오전 상하이 지하철역 9호선 허완루역에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했다. 용의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관련 게시물이 약 1억 640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일각에서는 용의자가 올해 초 7조 달러(약 9737조 원) 규모의 중국 증시 폭락으로 손해를 본 주식 투자



자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는 이와 비슷한 폭력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지린성 북동부의 한 도시에서 미국 대학 강사 4명이 현지 남성이 휘두른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초에는 산시성의 한 지방 정치자문기구 위원장이 불법 점유 국영주택 정리를 둘러싼 분쟁으로 살해당했다. 지난달에는 장시성 남동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2명이 숨졌다.

중국 대중은 폭력 사건이 드문 자국에

서 최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경기침체를 꼽았다. 극심한 경제 불안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경제 환경의 압박이 모든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을 자극하거나 괴롭히지 마라. 폭발의 임계점이 어딘지 알 수 없다. 불안한 경제 상황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주의하라”고 충고했다.

중국 채용 사이트 자오피 설문조사에서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약 32%가 지난해 급여가 삭감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중국 내 시위의 약 80%가 부동산시장 침체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장시성과 상하이 사건의 범행 동기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지린성에서 부상한 교사 중 한 명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테러범이) 실직 상태로 운이 나빴다”고 설명했다.

또 광둥성 경찰대학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140건의 주요 폭력사

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범인이 범죄 전과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급격한 경제 변화로 인해 사회 일부 계층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폭력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게 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르넷 웅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3년간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발생한 정신 건강 문제가 높은 청년실업률을 포함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무작위인 폭력 행위는 압박이 심한 사회에서 억눌린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이 더 광범위한 중국 대중의 경제적 고통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피쳐칼리지의 한장리 우 정치학 조교수는 “용의자 역시 경기침체와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을 투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분석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세계 벌거벗고 자전거 타기 대회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22일(현지시간) ‘세계 벌거벗고 자전거 타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속옷만 입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이 행사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신경 쓰고 환경 보호를 위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자고 촉구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멕시코와 유럽과 미국 등 북반구 지역은 6월 중 행사가 치러지며 호주 등 남반구는 12월~내년 3월 개최된다.
과달라하라(멕시코)/AFP연합뉴스

바그너그룹 반란 1년… 러시아, 조직 해체 박차

국내 남은 전투원 정부로 이적
아프리카선 병력 충원 등 활발
러, 장관 교체 등 인사 쇄신 착수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킨 지 23일로 1년을 맞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은 반란 이후 바그너에 대한 정부와 군의 통제 강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대비를 위해 조직 해체와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이날 보도했다.

고(故) 예브게니 프리고진 설립자의 지휘 아래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200km 앞까지 진격했던 당시 바그너가 보유한 전투원은 2만5000명 이상이었다. 그러나 반란을 포기한 후 일부는 국경을 마주한 벨라루스나 체첸공화국으로 넘어갔고,

국내에 남은 전투원은 러시아 국방부나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국가친위대 등으로 이적했다. 이후 프리고진이 지난해 8월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하면서 바그너의 통제권은 사실상 러시아 정부가 쥐게 됐다.

러시아가 군사와 자원 분야에서 계속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아프리카에서는 바그너 조직원 일부가 국방부 등의 지휘를 받으며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그너는 텔레그램을 통해 2월부터 아프리카 파병 인력 모집을 재개했다.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지난주 바그너 병력 1500~2000명가량이 중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바그너의 아프리카 착취 실태를 추적하는 단체 블러드골드리프트의 데이비드 클레멘트 선임 연구원은 앞서 본지와와 인터뷰에서 “바그너 용병들은 프리고진 사망 후 아프리카 군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지

만, 이들은 바그너일 때든 군단일 때든 언제나 푸틴의 명령을 따랐다”며 “크렘린궁이 아프리카에서의 노력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바그너의 재편이 진행 중인 것과 동시에 러시아 국방부가 올봄 이후 인사를 쇄신한 것도 눈에 띄고 있다고 닷케이는 짚었다. 푸틴 대통령은 5선에 성공한 지난 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방장관을 세르게이 쇼이구에서 안드레이 벨루소프교체했다. 쇼이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한 인물이지만, 프리고진으로부터 무기 조달 미비 등으로 강도 높게 비판받으면서 바그너 반란의 원인으로 꼽히던 인사이기도 하다. 나아가 푸틴 대통령은 이달 국방차관 4명을 숙청하고 사촌딸을 후임자 중 하나로 앉혔고,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비리와 뇌물수수 적발도 잇따르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바이든·트럼프, 첫 ‘TV 맞장 토론’

27일 CNN서 90분간 중계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이번 주 첫 TV 토론에 나선다. 경제부터 이민자, 복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안을 놓고 설전이 펼쳐지게 된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7일 두 후보 간 첫 번째 TV 토론이 개최된다. 중계는 CNN방송이 맡고 토론은 90분간 열린다. 토론 순서는 동전 던지기로 하며, 방송사는 상대가 끼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발언 기회가 없는 후보의 마이크는 꺼두기로 했다.

이번 토론은 1960년 TV 토론이 시작된 이래 양자 후보가 가장 이른 시점에 맞붙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짚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팽팽한 데다 현안이 많아 대중의 관심이 과거보다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는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바

이든 표 경제 정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바이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대부분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문제에 집중됐다. 지속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좀처럼 내리지 못하는 현상이 트럼프 후보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민자 정책,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헨터 바이든의 사법 리스크, 고령 등이 트럼프 후보의 주요 공격 카드로 평가된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주의 후퇴를 공격할 전망이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성 추문 입막음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위기에 놓였다. 유죄 판결에도 탄탄한 지지층을 갖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는 그의 구속 가능성과 대선 출마 불가를 주장할 수 있다. 경제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내세우는 법인세 인하와 의료 혜택 삭감이 부자를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해 서민층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대영 기자 kodae0@

‘애플 AI’ 출시하기도 전에 난항

EU, DMA 규제로 출시 보류
중국선 AI 협력사 확보 못해

애플이 야심 차게 선보인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 설치될 인공지능(AI)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가 무기력 상태에 빠졌다. 출시하기도 전에 세계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애플 인텔리전스를 유럽에서 당분간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자사의 데이터 보안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월부터 시행된 EU의 DMA는 애플 등 주요 기술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반면,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승인된 앱만 배포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구조로 돼 있어 DMA의 제3자 ‘상호 운용’ 규정과 상충한다. 애플은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아이폰 미러링, 셰어플레이 등의 새 AI 기능을 EU에서는 당분간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 중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플은 AI 음성인식 비서 시리(Siri)에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가 탑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챗GPT를 금지하고 있다. 애플은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에 AI 기능을 더해 중국 판매 실적을 늘리려고 했지만, 협력할 만한 중국 AI 기업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나영 기자 2or0@

‘친환경·저예산’ 파리 올림픽… 최대 16조원 흑자 기대

내달 26일부터 '전세계 잔치'

2024 프랑스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이 한달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6일(현지시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206개국 1만500명의 선수단이 32개 종목 329경기에 나간다. 바로 직전 2020 도쿄올림픽 대부분은 무관중으로 열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는 사이,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가 주춤했던 것. 이에 반해 올해 행사는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이후 8년 만에 외연을 제대로 갖춘 올림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림픽 개최를 위한 70억 유로(약 10조4000억 원) 대부분은 미디어 판권과 기업 후원, 티켓 판매 수입으로 충당한다. 여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현금 및 서비스로 기부한 15억9000만 유로가 포함된다.

파리올림픽 주최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을 위한 지출 1유로당 3유로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 줄이고 탄소 감축=올림픽 준비 단계에서부터 예산 절약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던 과거와 달랐다. 종목별로 전문 경기장을 구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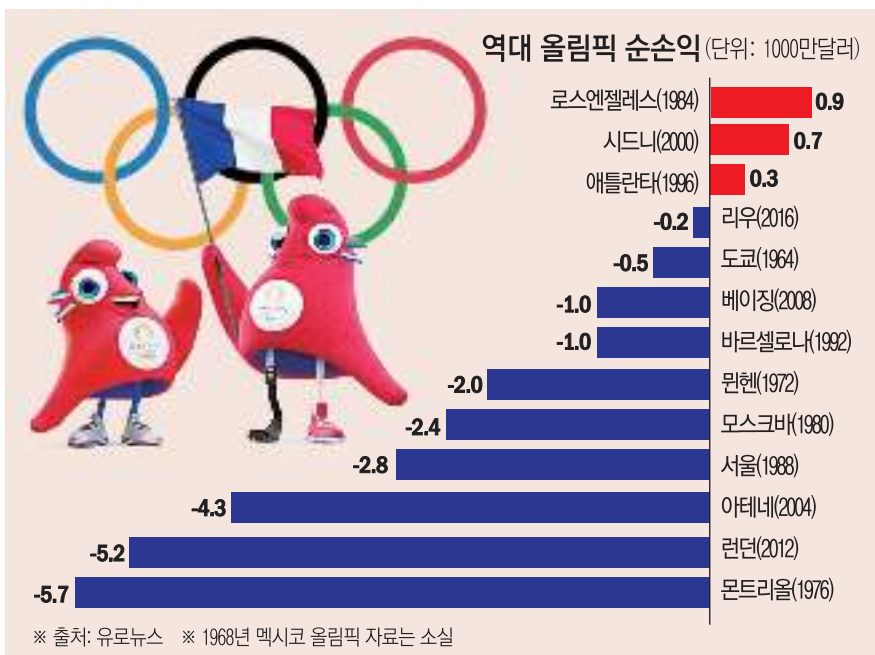
인프라 비용에 올림픽 흑자 3번뿐
파리는 센강서 수영 경기 여는 등
경기장 덜 짓고 야외·기존시설 활용
일각선 "입장권 판매 줄어 수익 감소"

는 한편, 일부는 현재 경기장 또는 파리 곳곳에 퍼진 도심 인프라를 활용한다.

파리 도심을 흐르는 센강 야외 수상 개
막식을 열고, 이곳에서 수영 경기도 연
다. 이처럼 들어간 돈이 적으니 남는 게 더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팽배하다.

초기 투자를 크게 줄인 올림픽은 IOC가 내세운 전략적 로드맵과 일맥 한다. IOC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책임을 지는 대회를 계획했다. 전 세계적 과제인 탄소 감축의 의미도 포함한다. 파리는 이런 로드맵이 설 정된 이후 첫 올림픽 개최국인 셈이다.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주최 측은 올림픽 티켓을 준 관람객만 해도 230만~3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OC와 프랑스 리모주대학 분석 등에 따르면 이번이 없는 한 2024년 파리 올림픽은 흑자를 낼 확률이 높다. 적게는 67억 유로, 많으면 111억 유로(약 16조 5000억 원)의 경제적 순이익을 창출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차례 올림픽에서 흑자는 단 3차례
= 반면 일각에서는 부정적 견해도 뒤따른
다. 일부 경기는 도심에서 열리는 만큼, 입
장권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익

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맞서고 있다.

나아가 올림픽 자체가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유럽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시작으로 2016년 리우(브라질) 올림픽까지 14번

의 올림픽이 열렸는데 흑자를 기록한 올림픽은 고작 3차례에 불과했다.

1988 서울올림픽은 초기 인프라 투자를 고려하면 2800만 달러의 적자를 낸 것으로 IOC는 보고 있다. 물론 올림픽 흑자와 적자는 어느 기준에 맞추느냐, 무형의 가치를 얼마나 책정하느냐에 따라 결판값이 달라지기도 한다.

유로뉴스는 로잔대학의 마틴 뮐러 교수의 발언을 이용해 “많은 개최국이 이벤트 이후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는 경기장에 많은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올림픽 대부분이 적자”라고 지적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이후 학자를 낸 곳은 미국 2곳과 호주 1곳이 전부다. 특히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이 달성한 900만 달러 학자는 꽤 이례적이었다. 당시 LA가 유일한 후보여서 단독 후보로서 입금이 컸던 것이 주원인이다. IOC 역시 무리한 경기장 건축 등의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 돈을 저게 쓰고 올림픽을 개최한 셈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17일(현지시간)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 에펠탑 인근 센강에서 바지선이 움직이고 있다. 파리/AP연합뉴스

센강서 열리는 ‘水上 개막식’ 입장권 없어도 누구나 즐긴다

강변 상층부서 무료로 관람 가능

“환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2024년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7년 올림픽 카누 3관왕이자 대회 조직 위원장으로 임명된 토니 에스탕게와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다짐했다.

프랑스24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파리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기장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와 파리는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인프라 스타디움을 짓기보다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파리의 상징' 에펠탑 아래에서는 비치발리볼과 장애인 축구 경기가 열린다. 프랑스 절대왕정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승마와 근대 5종 경기가, 역사적인 건축물이자 박물관인 그랑팔레에서는 태권도와 펜싱 경기가 예정됐다.

특히 개막식장소를 전통적인 스타디움
에서 파리의 중심부를 흐르는 센강으로

올겨울 올림픽 역사에 새 발자취를 남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상 개막식에서는 각국 선수들이 센강에서 배를 타고 약 6km가량 행진할 예정이다. 약 32만 명의 관람객이 센강 양쪽 강변 및 다리에 설치된 관람석에서 개막식을 지켜보게 되는데, 이 중 22만여 명의 관중들은 강변 상층부에서 무료로 개막식을 관람할 수 있다.

개막식 입장권 수익 일부를 포기하면
서까지 이색적인 개막식을 추진하겠다는 파리의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완전히 개방된 대회’라는 이번 올림픽 슬로건과도 일맥상통한다. 대회조직위원회는 “하계올림픽 개막식이 경기장 밖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프랑스 정부와 파리는 여러 문화재를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센강에서 개막식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관광 마케팅 포인트를 갖고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파리관광청은 올림픽 경기티켓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지출액도 약 26억 유로(약 3조 8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NH농협금융

나와 가장 가까운 NH농협생명 스마트 직영점

보험 설계에서 가입과 청구까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PC와 모바일로 간편하게!

내맘같이

NH농협생명

기아 첫 픽업트럭·제네시스 GV90 콘셉트카 ‘총출동’

부산모빌리티쇼 27일 개막

현대차그룹 등 6개 완성차 참여
르노 하이브리드 SUV ‘오로라1’
BMW ‘뉴M4’ ‘뉴 iX2’ 등 선배

‘2024 부산모빌리티쇼(부산 모터쇼)’가 27일 프레스테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행사에 참여하는 완성차 브랜드가 신차 또는 콘셉트카를 최초로 공개하는 만큼 풍성한 볼거리가 기대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 모터쇼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11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다. 모터쇼에 참가하는 완성차 브랜드는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 등 현대자동차그룹 3곳과 르노코리아, BMW, MINI(미니) 등 총 6곳이다. 현대자동차는 부산 모터쇼에서 ‘오늘을 넘어선 내일의 EV와 수소(Beyond EVeryday)’를 주제로 총 15대의 차량을 전시한다.

가장 기대를 받는 차량은 하반기 출시를 앞둔 캐스퍼 일렉트릭이다. 현대차는 부산 모터쇼를 통해 캐스퍼 일렉트릭의 실차를 처음 공개하고, 실내 시승으로 4



기아는 27일 개막하는 부산모터쇼에서 위장막을 씌운 픽업트럭 ‘타스만’을 국내 최초로 전시한다.

사진제공 기아

대를 운영한다.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캐스퍼 일렉트릭은 49킬로와트시(kWh) 용량의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탑재했다. 지난 11일 현대차가 공개한 캐스퍼 일렉트릭의 티저 영상에서는 주행가능 거리가 315km로 표시되는 등 경차임에도 300km 수준의 주행 거리를 확보했다.

기아는 지난달 공개한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의 실차를 포함, 14대의 차를 전시한다. EV3는 이미 사전계약 6000대를 돌파할 정도로 소

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EV3의 가장 큰 무기는 ‘가격’이다. 얼리 머저러티(초기 다수층) 공약을 목표로 나온 만큼 세제 혜택 적용 전에도 4208만~5108만 원의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됐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3000만 원 중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가 출시된 셈이다.

아울러 기아는 브랜드 첫 픽업트럭인 ‘타스만’의 전용 위장막 모델을 이번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하고 목적기반모델(PBV) 콘셉트카 5대를 전시하는 등 다

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모델을 선보이는 데 힘을 쏟는다.

제네시스는 현대차그룹에서 가장 적은 7개차량을 전시한다. G80 전동화 모델 부분변경 모델이 국내 최초로 공개되며 GV90의 모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네오콘셉트도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다. 또한 제네시스엑스 그란 레이서 콘셉트 모델도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이밖에 GV70, GV80 쿠퍼, G90 블랙도 전시할 계획이다.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르노코리아는 차세대 친환경 신차 개발 프로젝트의 첫 모

델인 ‘하이브리드 D SUV(오로라1)’를 최초 공개한다. 르노코리아가 4년 만에 선보이는 신차인 이차량은 볼보의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모델로, 최근 이어지는 르노코리아의 판매 부진을 타개할 핵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부산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 이후 올해 하반기 오로라1을 출시할 예정이다.

수입 브랜드 중에는 BMW 그룹이 유일하게 참가한다. BMW 그룹은 BMW, 미니를 포함 총 18가지 모델을 선보인다. 먼저 BMW는 더욱 스포티한 모습으로 진화한 고성능 쿠퍼 ‘뉴 M4’와 순수 전기차 ‘뉴 iX2’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또한 지난해 9월경 공개한 콘셉트 모델 ‘BMW 비전 노이어 클라세’를 전시하며 전동화 시대를 향한 BMW만의 독보적인 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미니는 고유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움을 더한 ‘더 뉴 미니 패밀리’를 소개한다. 미니는 △뉴 올 일렉트릭 미니 쿠퍼 △뉴 올 일렉트릭 미니 컨트리맨 등 전동화 모델은 물론 △뉴 미니 JCW 컨트리맨 △뉴 미니 쿠퍼 △뉴 미니 컨트리맨 등 고성능과 내연기관을 아우르는 모델을 선보인다.

이민재 기자 2mj@

조선소 풀가동해도 납기일 못 맞춰…로봇 등 설비투자 가속

숙련공 줄고 안전사고 발생 영향 조선3사 수천억대 설비 투자 단행 삼성중 배관 자동용접 장비 도입

국내 조선사들이 올해 들어 조선소를 풀가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납기 지연 사례가 나오고 있다. 납기일 지연이 고착화되면 조선사들의 수익에도 영향이 가는 만큼, 조선사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에 나섰다. 업계는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노동자 안전사고 확률도 줄어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오션과 HMM은 각각 공사를 통해 1만3000 TEU급(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 6척에 대한 인도 예정일을 기존 대비 약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HMM에 이달 말이나 11월 말에 해당 선박들을 인도하게 됐다. HD현대중공업 역시 HMM에서 수주한 6척의 선박 중 1척을 1달 정도 지연된 7월 인도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내 조선사들의 납기일이 지연돼 발주처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숙련공 숫자 부족, 안전사고 발생 후 안전 점검 시행에 따른 일시적 도크 멈춤 등의 이유에서다. 특히 수주량이 늘어나며 건조 물량이 증가한 이유가 크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3사의 올 1분기 평균 조선소가동률은 HD한국조선해양이 98.4%,

한화오션 101%, 삼성중공업은 106%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각각 81.3%, 97.1%, 97%였다. 가동률은 생산가능량 대비 실제 생산량을 뜻한다. 올해 들어 조선사들이 가동률을 초과 달성해도 납기일 맞추기가 빠듯해졌다는 의미다.

납기일 지연이 장기화·고착화되면 조선사가 선주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1~3척 정도의 소량 발주가 아닌 5척 이상의 중·대량 발주의 경우 적당 가격이 소량 발주 대비 낮은 만큼 납기일 지연에 더 치명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사들은 납기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선사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에만 한화오션은 설비 투자에 4255억 원, HD한국조선해양은 2833억 원, 삼성중공업은 약 27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선사들은 설비 투자를 통해 조선소 내 인공지능(AI) 기술 강화, 선박 건조 로봇 활용 증대 등으로 생산성 향상과 자동화율 증가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기홀 플라즈마 배관 자동용접 장비(K-PAW)’를 최근 국내 최초로 실제 건조 현장에 투입해 배관 초층 용접의 자동화를 이뤄냈다. 숙련공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배관 용접 작업을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면서 용접 속도가 3배 이상 빨라



삼성중공업이 새로 도입한 장비가 자동으로 배관 용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중공업

졌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안에 K-PAW에 AI 기술을 접목해 완전 무인화된 용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자동화로 인한 작업 속도 개선은 물론 인력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화오션 역시 조선 공정의 자동화 및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대한상의 “AI·클라우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정책 개선 61개 과제 정부에 건의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3일 ‘투자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 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 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투자 거버넌스 보강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고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은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 투자를 위해 한국형 테마섹의 설립을 요청했다. 한국형 테마섹이란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미래전략기술 확보, 첨단산업 관련 생산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위험성을 분담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내자본으로서 투자하는 국가투자지주회사를 말한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리버스(Reverse)-BTL’과 같은 새로운 투자 기법을 제안했다. 리버스-BTL은 기존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뒤집는 ‘역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과 관련해 인공지능(AI)·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는 “AI·클

라우드를 디지털 전환과 전 산업의 생산성 구조를 바꾸는 기술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 요소이고 국가안보 차원에서든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 AI 투자금액은 주요국 대비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인·허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양극재 및 음극재 통합 환경 허가제 시행 유예’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 계량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전자 장치 및 소프트웨어 변경 시에는 재승인이 필요한데, 재승인 절차와 과정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상의는 통신 모델 변경 등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재승인 면제, 인증 기간 단축 개선을 요구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삼성 인공지능 에어컨 하루 평균 1만대 판매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삼성전자가정용 에어컨이 지난주 일평균 1만대 판매를 넘어섰다. 5일간 1분에 7대 이상 판매된 셈이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소비자들이 에너지 절감 기능과 스마트한 기능을 탑재한 AI 무풍에어컨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기간 판매된 에어컨 중 80% 이상이 무풍에어컨이었으며, 모든 라인업이 무풍인 가정용 시스템에어컨 판매도 5~6월 연속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갤러리’는 전 모델이 에너지 소비효율 1~2등급을 획득했다. 스마트싱스 AI 절약 모드로 상황별 맞춤 절전이 가능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빅스비를 적용해 리모컨 없이 음성 명령으

로 에어컨의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실행할 수 있다. 에어컨을 켜고 끄거나 온도를 조절하는 등 간단한 음성 제어는 와이파이가 연결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실내 움직임 인지에 에어컨을 알아서 작동하는 AI 기능을 탑재해 제품을 한층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실내 움직임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정 시간 이후 절전 모드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끄는 ‘부재 절전’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어컨 내부의 습기를 건조시키는 ‘부재 건조’로 위생 관리가 더 편리해졌다.

가정용 시스템에어컨 인기 역시, 판매가 증가한 주요인이다. 최대 6대까지 8시간 만에 설치할 수 있는 ‘가정용 시스템에어컨 책임시공’ 서비스를 이용·제공해 이사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송영록 기자 syr@

너의연주가 세계에 울려 퍼지게

어렸을 적부터 멋진 피아니스트를 꿈꿔 온 해림 씨가
다양한 지원과 공연 기회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신한은 도전하는 청년들과 아름답게 동행합니다

청년은 더 빛나야 하니까
아름다운 동행

제15회 신한음악상 피아노 부문 수상
피아니스트 박해림

[국내 금융권 최초 클래식 콩쿠르, 신한음악상]

2009년 시작된 신한음악상은 국내 클래식 발전을 위해 젊은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세계를 빛낼 아름다운 연주자로 성장시키는 신한 대표 메세나 프로그램입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그룹

〈디스플레이〉

“디플·이차전지 핵심분야 두각… 5年後 매출목표 800억”

탐방기UP 코아테크시스템<글>

전자제품·물류 자동화 설비 개발

“우리의 물류 자동화 설비는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며,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높은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울 코아테크시스템 대표는 2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회사를 이같이 소개하며 “자동화 설비들은 각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향후 기술적 발전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코아테크시스템은 2001년 1월에 설립, 전자제품 및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구축하고 있다. 설립 이후 물류 자동화 설비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고 고객 중심의 접근으로 품질과 신속한 납기를 보장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코아테크시스템은 자본금 8억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매출 530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코아테크시스템은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 코아테크시스템의 물류 자동화

생산성 극대화하고 오류 최소화
신속 납기 등 고객만족 최우선
글로벌시장서 높은 신뢰성 구축
“전문성 강화로 선도기업 될 것
글로벌 위기에 대응도 모색”

설비는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주요 장비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액정표시장치(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생산 라인에서는 자동화된 운반 시스템과 로봇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런 설비는 원료의 운반, 제품의 조립 및 검사 과정에서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여준다. 특히 자동화된 검사 및 포장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패널은 미세한 결함 없이 제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교한 검사 시스템이 요구된다. 코아테크시스템 설비는 이런 자동 검사 시스템을 포함해 제품의 품질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자동 포장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안전한 운반을 보장한다.

이 물류 자동화 설비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대표는 “우리 물류 자동화 설비는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및 팩 제조 라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런 설비는 배터리 셀의 조립, 모듈화, 충전 및 검사 과정에서 사용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품질을 향상



김재울 코아테크시스템 대표가 ‘디스플레이 대응용 로더(Loder)’ 장비를 살피고 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파주 본사에 보관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대응 설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차전지 제조업체들은 대규모의 배터리 팩을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동화된 창고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코아테크시스템의 설비는 창고 내 자동화된 보관 및 운반 시스템을 제공해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한다”고 부연했다.

김대표는 경영방침에 관해 묻는 말에 “고객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반영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재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김대표는 “회사는 인재를 중요 자산으로 보고,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기술적 경쟁력과 혁신을 지속해서 강화하며,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표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원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효율적인 생산 과정과 비용 관리를 통해 원가를 최소화하고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이는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향상하는 방안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화 설비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모든 임직원이 주주로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 참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초우량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렇게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꼽았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2008년이 제게 있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다. 이때 당사는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인력감축을 피할 수 없었고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김대표는 현재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태인 만큼 올해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향후 5년 후에는 지금보다 매출이 두 배 가까이 성장한 800억 원대로 목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매출은 감소가 예상돼 350억 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대표는 “2~3년 내 투자가 다시 회복된다면 향후 5년 후 매출액은 700억~8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시장분석 및 예측·경쟁사 분석·제품 및 서비스 다각화·해외시장 동향 확인·기술투자 및 원가혁신 등의 전략을 수립해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AI 지각생’ 애플·카카오의 반란

LLM보다 AI 서비스 개발 승부수
카카오, 카톡 강점 활용 구독·상담
애플은 AI생태계 체험 ‘록인’ 전략

‘인공지능(AI) 지각생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AI 지각생으로 대표되는 애플과 카카오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집중하기보다는 AI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 사업자가 견고한 생태계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연내 사용자 중심의 AI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당초 카카오는 지난해 8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선보인 직후 자회사인 카카오브레인이 개발한 생성형 AI ‘코GPT 2.0’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에 내용까지 번지자 AI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출시가 연기됐다. 이에 카카오는 자체 LLM을 공개하는 대신 서비스 형태로 내놓으며 수익화에 집중하겠다고 결정했다.

오픈AI를 비롯한 빅테크가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 정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모델을 선보이는 상황에서 코GPT 2.0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자사 모델뿐만 아니라 오픈AI 등 외부 모델도 혼합해서 활용하고 있다.

AI업계 관계자는 “챗GPT-4 옴니가 나온 이후로 업계에서는 모델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과거에는 모델 성능을 끌어올려 고도화를 하는 데

‘AI 지각생’ 애플·카카오

애플

- 오픈AI와 협력해 챗 GPT 탑재
- 개인화 서비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데이터 보안
- 아이폰·아이패드·맥·애플워치 등 자사 제품에 AI 결합
- 연내 애플 음성 비서인 시리에 GPT-4o 탑재 예정

카카오

- 자사 AI 모델과 오픈AI 등 외부 모델 혼합해서 활용
- 4870만명 이용자 보유한 슈퍼앱 카카오톡 보유
- 텍스트, 채팅 기반 AI 콘텐츠 구독 및 상담 서비스 준비

AI!

AI! kakao

집중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픈AI도 수익화를 위해 GPT스토어를 냈지만 잘 안됐다. 여전히 킬러앱, 킬러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실생활에서 피부에 와닿는 기기와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강점을 활용해 채팅에 적합한 AI 기반 콘텐츠 구독 및 상담 형태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정신이 카카오 대표는 AI 시장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카카오만의 강점을 활용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카카오의 강점은 카카오톡의 연결성과 이용자 수다. 월간 활성과 이용자 수(MAU) 4870만명(1분기 기준)을 보유한 카카오톡 기반으로 서비스 곳곳에 AI와 사람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카카오는 최고경영자(CEO)직속으로 AI 전담 조직 ‘카나나’를 신설했다. AI 서비스 중심 조직인 ‘카나나’

스’와 AI 모델 개발 중심 조직인 ‘카나나 알파’로 구성된 카나나는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접목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AI 서비스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전략이다.

애플도 자체 LLM 개발을 포기하고 오픈AI의 GPT-4o 기반의 챗GPT를 연동하며 AI 시장에 뒤늦게 합류했다. 업계에서는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애플은 개인화 서비스와 아이폰·아이패드·맥·애플워치 등 자체 하드웨어 생태계를 무기로 이용자를 강력하게 록인(lock-in)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애플이 오픈AI가 선도하는 AI 생태계를 자사 중심으로 다시 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오픈AI의 LLM 모델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 AI의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이용자는 극히 소수”라며 “애플이나 카카오톡에서 연동이 돼야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들이 록인 효과를 통해 수익 창출 측면에서 앞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LGU+, 양자내성암호 적용 가상사설망 출시

〈U+ PQC-VPN〉

국정원 보안기능확인서 첫 획득

LG유플러스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양자내성암호 기술이 적용된 가상사설망 솔루션 ‘U+ PQC-VPN’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확인서를 받은 솔루션이다.

양자내성암호(Post Quantum Cryptography·PQC)란 슈퍼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빠른 양자컴퓨터로도 해킹하기 어려운 암호 알고리즘이다. 가상사설망(VPN)은 두 객체가 서로 통신을 할 때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게 하도록 만든 가상의 통신망을 말한다.

LG유플러스 측은 U+ PQC-VPN은 전국에 분포한 지사와 본사 간 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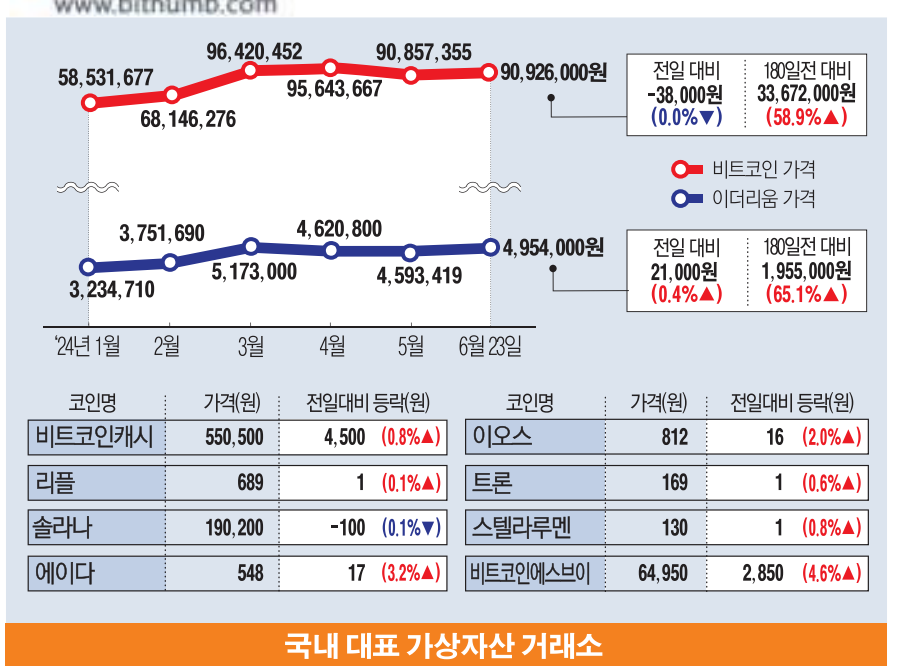
LG유플러스는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적용한 가상사설망 솔루션 ‘U+ PQC-VPN’을 출시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화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기업에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병원 등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곳일수록 더 높은 효율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4년 6월 23일 17:00, KST)



똥똥한 기술 하나로 多계약… K바이오 플랫폼 잇단 ‘잭팟’

兆단위 기술수출 ‘개가’

에이프릴바이오 ‘SAFA 플랫폼’
美 에보문에 ‘APB-R3’ 기술 등
총 2건 이전… 누적 규모 1.2兆
리가캠바이오 13건… 총 8.7兆
에이비엘바이오도 1.3兆 규모

국내바이오플랫폼기업이해외기업과
연이어기술수출에 성공하며잭팟을터뜨
리고 있다. 최근 기술이전에 성공한 에이
프릴바이오는 비롯해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 에이비엘바이오 등 플
랫폼 기업의 기술이전 규모는 조 단위가
넘는다.

23일바이오업계에따르면에이프릴바
이오는 미국 신약개발사 에보문에 자가
염증질환 치료제 ‘APB-R3’를 기술이전
했다. 총 계약 규모는 4억7500만달러(약
6550억 원), 계약금은 1500만 달러(약
207억 원)이고 판매 로열티는 별도다. 기

국내 주요 바이오 플랫폼 기업 ※출처: 각 사		
기업명	플랫폼 명	기능
알테오젠	하이브로자임(ALT-B4)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경
리가캠바이오	ADC 컨주올(ConjuALL)	항체 특정 부위에 원하는 페이로드를 접합하고, 약물의 혈중 안정성 높여
에이비엘바이오	그랩바디	항원을 타깃하는 항체를 추가해(이중항체) 목표하는 항원에 많이 도달하도록 함
에이프릴바이오	지속형 재조합 단백질(SAFA)	체내 약물의 반감기 증가



술이전 기반은 지속형 재조합 단백질
(SAFA)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우리
몸에서 약물의 반감기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약물이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속도
를 늦춰 약물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2021년에도
SAFA플랫폼으로 덴마크 제약사 룬드
백에 최대 4억4800만 달러(약 5400억
원) 규모의 APB-A1 기술이전을 성사
시켰다. SAFA플랫폼 2건의 기술이전
누적 규모가 1조2000억 원이다.

알테오젠은정맥주사(IV)를피하주사
(SC)로 바꿔주는 플랫폼 ALT-B4로 4

건, 총 7조 원에 달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했다. 올해 2월엔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
트루다 SC제형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
고 공식 발표했다.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업리가캠바
이오사이언스는2015년 중국 포순제약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안센과 계약까지 13
건의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전체 금액은
8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7건이 컨
주올 ADC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컨주
올은 항체와 페이로드(Payload·저분자
화합물)를 원하는 부위에 결합하고, 약물이
혈중에서 방출되지 않게 해준다. 안전

성과 암세포 살상 능력도 우수하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 플랫폼 그
랩바디 중 뇌질환 이중항체 타깃 그랩바
디-B 기술로 개발한 파킨슨병 치료제 후
보물질 ABL301을 2022년 사노피에 10
억6000만 달러(약 1조2700억 원) 규모
로 기술이전했다. 이 플랫폼은 뇌 내피세
포 표면에 존재하는 인슐린 유사성장인자
1 수용체(IGF1R)를 타깃해 항-알파시
누클레인 항체가 혈액뇌관문(BBB)을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바이오플랫폼기업이주목받는이유는
연속성과 확장성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

은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한 물질을
기술이전하거나플랫폼 기술자체를이전
한다. 플랫폼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고객
사가 보유한 물질에 플랫폼 기술을 적용
하는 개념이다.

또 일반적으로 하나의파이프라인을기
술이전하면 고객사가 해당 물질에 대한
연구개발, 상업화 권리까지 가져간다. 해
당 고객사가 기술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손을 떠난다. 하지만 플랫폼을 활용하면
여러 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이 한 곳으로 한정되지 않고 여러
번의 기술수출이 가능하다.

바이오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파이프
라인은 한 번 기술이전하면 끝이지만, 플
랫폼은 다수 고객사에 중복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국내바이오
기업 대표는 “플랫폼을 통해 개별 파이프
라인을 계속 개발할 수 있어 플랫폼 기업
이 매력적이다.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플
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만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비타민 B 콤플렉스’ 해결사, C까지 더해… “현대인 피로 몽땅 압수”

장수의약품을 찾아서 ⑩

유한양행 ‘빼꼼씨’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 유일한 박사의
송고한 정신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빼꼼씨’는 1963년 탄생한 유한양행
의 원조 국민영양제다. 전쟁 후 보릿고
개가지속되던당시 우리 국민은미국이
원조한 옥수수가루로 만든 강냉이죽으
로 근근이 끼니를 이어갔는데, 탄수화
물 위주의 영양섭취는 펠라그라와 각기
병, 구루병 등 비타민B 결핍증으로 이
어졌다.

유한양행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
는 저렴한 값에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영양을 보급하겠다는 뜻을 담아 ‘빼꼼
정’을 출시했다. 빼꼼은 ‘비타민B 콤플
렉스’의 줄임말이다.

최근서울동작구대방동 유한양행 본
사에서 빼꼼씨를 담당하는 이도원
OTC마케팅팀 부장과 김혜경 OTC마
케팅팀 PM(제품담당자)을 만났다. 이
부장은 “빼꼼씨는 소비자들이 이름만으
로도 바로 효능을 연상할 수 있도록 제
품명부터 정작하게 지었다”며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박사의 마음이 깃든 제



전쟁 후 국민 영양 위해 빼꼼정 출시
87년 비타민C 추가… 가격도 저렴
잔류기간 긴 활성비타민 함유
진화 거듭·젊은세대 소통 노력도

품”이라고 설명했다.

빼꼼정은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1987년비타민C를 추가한빼꼼씨로다
시태어났다. 비타민B는몸속에서산화
·환원 반응을 촉진해 세포 재생을 돕고,
비타민C는우리몸의조직세포·잇몸·혈
관·뼈·이 등을 성장·유지시키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다. 이 부장은 “간간한 품질
검사를 통한 우수한 효과와 신뢰를 바탕
으로 한 회사의 이미지, 한 달분을 2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착한 가격이 빼꼼



유한양행 OTC 마케팅팀 이도원(오른쪽) 부장과 김혜경 PM이 최근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씨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총 3종의 빼꼼씨 제품이 약국에
서 판매된다. ‘빼꼼씨 이브’는 2012년,
‘빼꼼씨 파워’는 2019년 출시됐다. 빼
꼼씨 정체성은 지키면서 영양제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나온 제품들이다. 김
PM은 “빼꼼씨 이브는철분과마그네슘
등 미네랄과 항산화물질 코엔자임Q10
등을더해여성이나청소년을 겨냥한제
품”이라며 “한 병으로 3개월 이상 복용
할 수 있어가성비도 좋다”고 말했다.

빼꼼씨파워는비타민B군3종(B1·B

2·B6)을 생체이용률이 높은 활성비타
민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충분한햇볕을
쬘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비타민D
를 더했다. 비타민E 함량도 늘려 혈액
순환 개선과 항산화 효과를 끌어올렸
다. 이 부장은 “빼꼼씨 파워는 흡수율과
잔류기간이 긴 활성비타민을함유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저 역시 자기 전에 먹고 있다. 일어날 때
피로감을 최소화시켜 주고, 몸을 회복
시키는 효과가 느껴진다”고 소개했다.

최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되

며약국영양제 시장은정체기에 접어들
었지만, 제품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
다. 2020년까지 ‘온 가족 영양제’란 메
시지의 TV광고를 유지하던 빼꼼씨는
약국 내 눈에 띄는 곳에 제품을 배치하
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 PM은 “약국 방문객들이 제품을
바로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라며 “일반의약품은약사가 추천하고
약국에서 판매하니까 품질이 확실히 보
장된다”고 말했다. 또 이 부장은 “하루 1
회 복용하는제품이더 편리하게느껴질
수 있지만, 대다수 성분은 24시간 몸에
남기 어렵다. 하루 두 번 복용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며 “하루 두 번 자기 자신
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다.

젊은 세대와의 점점 늘리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플
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소통하고, 액상
이나 츄어블 제형을 개발해 제품군을다
채롭게 확장할 계획이다. 이 부장은 “복
용편의성을 개선해 소비자 니즈를 충족
하고자 한다”면서 “70주년을 향해 가는
만큼 신제품을출시해서매출도 더욱 늘
려나갈 것이다. 빼꼼씨의재도약을기대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고려 제약>

불법 리베이트·집단휴진에… 제약업계 ‘빨간불’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휴진과 최근 고려 제약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 제약이
의사 1000여 명에게 의약품 처방을 대가
로 금품을 제공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
다. 올해 4월 경찰이 고려 제약 본사에 대
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재까지 이 회사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현금과 물품, 골
프 접대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
했다면서, 의사 기준 1000명 이상을 확

인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를 조사하
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약업계는 이번 고려 제약 리베이트
를 시작으로 다른 제약사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여 개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
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는 올해 3월 21일부터 두 달간 의사 갑질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
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고 기간 24

다른 제약사로 수사 확대 가능성
사직 본격화에 영업 어려움 겪기도

건이 접수됐고 그중 19건을 경찰청에 넘
겼다.

국내 제약업계는 2월 전공의 집단사
직이 본격화하면서 주요 병원 영업활
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불법 리베이트까지 제기되면서 제약사
의 영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정 갈등 이후 수술·입원 환자가 감소
하며 처방 실적도 줄었다. 실제로 대형병
원의 경우 마취제·진통제·수액제 등 원내
의약품 처방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시장조사업체 아이큐비아 따르면
올해 1분기 기본 의약품 사용액은 5960
억 원으로 전년 4분기(7450억 원)보다
약 20% 감소했다.

제약업계는 1분기의 경우 의정 갈등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평가한

다. 대형병원에서 중소병원으로 바뀌었
을 뿐, 처방 감소 자체는 크지 않았다고
파악한다. 문제는 앞으로다. 전공의 사
직 후 2분기엔 수술·입원·외래 등 진료와
처방이 대폭 줄었고, 의료계의 집단휴진
여파 등이 3분기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
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18일 휴진에 개
원의사 약 15%가 참여했다. 높진 않은 수
치지만,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하면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사
이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호텔 DNA 끌어들이는 백화점... 고객 발길 사로잡는다

백화점이 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유통기업 매출이 일제히 줄면서 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온라인에 밀려 오프라인 매장도 점차 위축되는 모양새다. 백화점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백화점과 맞닿아 있는 특급 호텔과의 경계를 무너뜨려 고급화된 호텔 DNA를 백화점 매장으로 끌어오는가 하면 식품관 중심의 '핫플레이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부흥기를 꿈꾸고 있다.

“여기 호텔 같다”

21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이 이어지는 경계 공간, 하우스 오브 신세계(House of Shinsegae)를 둘러본 이들은 하나같이 ‘호텔’을 떠올렸다. 하우스 오브 신세계는 분영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백화점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호텔 로비·식음(F&B)공간 분위기가 물씬 났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센트럴시티 중앙부 3개 층에 7273㎡(2200평) 규모로 들어선 하우스 오브 신세계는 백화점과 호텔의 장점을 결합한 공간이다. 백화점의 콘텐츠에 호텔의 서비스를 합쳤

호텔 느낌 ‘하우스 오브 신세계’

롯데백화점, 5성급 호텔 셰프 모여 ‘푸드 밸리 인 소공’ 팝업 진행
백화점 내 체류시간 확대 목표

다. 하우스(집)라는 이름에 나타나듯 하우스 오브 신세계의 내부는 어두운 갈색 톤의 우드 스타일로 꾸며고 주백색 조명으로 아늑함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특히 지하 1층 하이엔드 푸드홀은 호텔 로비를 연상시켰다. 벽면 곳곳에는 예술 작품도 걸려있었다. 50대 이모씨는 “친구들과 모임 때문에 오게 됐는데 점심 먹고 커피 한 잔하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 좋다”며 “백화점보다 호텔 로비느낌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하우스 오브 신세계의 운영시간은 기존 백화점 폐점시간보다 2시간 늘어난 오후 10시까지다. 신세계백화점은 하우스 오브 신세계에 푸드홀로는 처음으로 레스토랑 주류 페어링을 도입했다. 신세계백화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의 하우스 오브 신세계(House of Shinsegae). 유승호 기자 peter@

점을 찾는 VIP 고객이 낮에는 여유롭게 식사를, 밤에는 술을 곁들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시도는 ‘유통 양대산맥’인 롯데백화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같은 날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관 지하 식품관에서 지하 1층에 ‘5성급’ 롯데호텔 각 분야별 셰프들이 모였다. 평소 고급호텔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마주치기 쉽지 않은 이들이 백화점 식품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8일까지 ‘푸드 밸리 인 소공(FOOD VALLEY IN SOGONG) 팝업 스토어’

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이 팝업은 일식, 중식, 양식 등 롯데호텔 레스토랑을 비롯해 호텔 인기메뉴를 포장 메뉴로 재구성해 판매하는 행사다.

현장에 나와있던 김철승 롯데호텔서울 팀장(셰프)은 “여름철을 맞아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장어덮밥이나 후토마키와 같은 보양식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보인 후토마키와 멘보샤는 각각 2만 3000원, 민물장어덮밥은 2만 8000원에 판매됐다. 또한 사전예약을 통해 판매되는 세계 3대 진미 삼페인 핑거푸드는 15

만 원에 책정됐다.

고객 응대에 나선 양정희 롯데호텔 매니저(뷔페 레스토랑 라세느 책임자)은 “2019년 이후 대략 4년여 만에 재개하는 행사”라며 “일식당 후토마키가 유명한데 이번 메뉴 개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신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 업장과의 가격 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품질의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 본점 F&B 실적은 올해 1~5월 기준 전년 대비 10% 가량 신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대적인 리뉴얼이 아니라도 참신한 매장 구성과 새로운 팝업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고객들의 쇼핑 트렌드를 민감하게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백화점 식품관”이라며 “단순히 먹는 곳을 뛰어넘어 백화점 내 고객 체류시간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식품관 차별화를 위해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유승호 기자 peter@



롯데백화점, 헬로키티 50주년 기념 ‘케이스티피아’ 팝업

1층 코스모너지 광장에서 케이스티피아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밝혔다. 30일까지 운영되는 팝업 매장에서는 스마트폰 케이스와 이어버드 케이스, 클러치 등 헬로키티 캐릭터가 그려진 다양한 케이스와 굿즈를 판매한다. 팝업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이벤트를 통해 산리오 캐릭터 스티커, 산리오 캐릭터 키링, 헬로키티 에코백 등이 제공된다.

롯데백화점이 ‘헬로키티’ 출시 50주년을 맞아 본점 지하 사진제공 롯데쇼핑

아워홈, IPO·경영권 매각 추진... CJ 등 눈독

고(故) 구자학 아워홈 창업주 2세 장남 구본성·장녀 미현 연합이 경영권 매각과 함께 기업공개(IPO) 추진을 선언했다. 이른바 ‘남매의 난’에서 막내동생 구지은 전 부회장을 회사에서 쫓아내고 이사회와 경영권을 장악하면서다. 재계에선 아워홈 경영에 큰 뜻이 없는 두 남매가 매각을 통해 빠르게 지분을 현금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단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워홈과 영위하는 사업이 비슷한 CJ 측의 관심이 많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식자재 유통업체 아워홈은 이르면 올해 안에 IPO 주관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돌입, 2026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목표다. 이는 최근 아워홈 신임 회장 자리에 오른 구미현 씨가 회사 매각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온 발표다. 구 회장은 19일 취임사를 통해 경영권 매각

구본성·미현 연합, 매각 선언
우선매수권 내용 등 걸림돌

의사도 공표했다. 구 회장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을 근원적으로 끝낼 방법은 전문경영인에 의한 합리적인 회사 경영으로 경영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매각을 공식화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 회장은 우선 아워홈 지분을 사모펀드 운용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쟁사 CJ프레시웨이를 갖고 있는 CJ 측의 관심이 많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매각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먼저 두 남매와 시장에서 보는 아워홈의 기업 가치가 서로 다르다. 2022년 구본성·미현 연합이 지분 매각을 추진할 당시 향후 성장성을 반영해 아워홈의 기업가치를 최대 2조 원

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아워홈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남매는 더 높은 금액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시장에서는 아워홈의 가치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반응이다. 시장에 책정한 아워홈 기업가치는 약 5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아워홈의 법LG가(家) 이탈로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워홈은 현재 LG 계열사의 식자재 유통과 단체급식 등을 맡고 있다. 그러나 아워홈이 매각되면 LG가 아워홈과 거래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진다.

아워홈 정관에 명시된 ‘우선매수권’에 대한 내용도 문제다. 주식 매각 시 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우선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회장과 구본성 전 부회장이 지분 매각에 나선다면, 구지은 전 부회장과 구명진 씨가 해당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갖게 돼 일방적인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현호 기자 m2h@

CU 빵 ‘베이크하우스 405’, 1000만개 팔려

출시 10개월... 빵 매출 30% 차지

편의점 CU의 고품질 베이커리 라인업인 ‘베이크하우스 405’가 출시 10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했다. 국민 5명 중 1명꼴로 이 제품을 구입해 먹어 본 셈이다.

CU는 23일 “작년 8월 베이크하우스 405 상품이 첫 출시된 이후 두 달 만에 판매량이 100만 개를 넘어섰고 올해 1월 3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매달 평균 10만 개씩 추가 판매가 이뤄진 결과 1000만 개를 넘어서게 됐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고객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 속도가 더욱 빨라진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CU는 이 제품의 인기 배경을 고물가 여파로 인해 편의점에서 간편한 한 끼 식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일반 편의점 빵을 뛰어넘는 제품의 품질이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기술 제휴와 제과명장 노하우 전수 등 베이커리 전문점 수준의 빵을 2000

~3000원대에 즐길 수 있는 점이 편의점 고객들에게 주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CU 베이커리 매출 신장률은 2021년 11.7%, 2022년 51.1%, 2023년 28.3%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베이크하우스 405(20여 종)’ 라인업은 200여 종에 달하는 CU 전체 빵 매출에서도 효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달 CU 베이커리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베이크하우스 405 시리즈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브랜드 내 인기순위를 살펴보면 스위트 페스트리, 피넛크림 소보로빵, 소프트롤링 커스터드, 소프트롤링 더블초코, 초코 페스트리, 오리진얼 슈크림빵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CU는 이같은 고객반응에 힘입어 다음 달 빵덕후 사이에서 유행 중인 크루키(크루아상+쿠키) 트렌드를 겨냥해 ‘황치즈 크루키’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까지 우리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20% 할인행사 등을 진행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아이스크림 5년새 40% ‘쑥’... 추가 인상 ‘촉각’

우유와 설탕, 계란 등 원재료 가격 상승 여파로 일반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에서 구입하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최근 5년 사이 300~40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가와 우유업계가 현재 원유(原乳)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추가 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전문가 가격 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6월 설탕 가격은 킬로그램(kg) 당 2330원으로 5년 전인 2019년(1630원)보다 42.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계란(15개) 가격 역시 5980원에서 8490원으로 42% 뛰었고, 물엿(1.2kg) 가격도 3250원에서 4680원으로

같은기간 설탕 43%·계란 42% ↑
8월부터 원값 났다 더 오를 수도

로 44% 상승했다. 우유(1ℓ)와 생수 가격 또한 5년 새 각각 16.9%, 10.2% 뛰었다. 버터(450g) 가격도 1만 3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6.8% 올랐다.

한국물가정보는 “지난 5년 간 원재료뿐 아니라 인건비와 가공비, 물류비 등이 모두 인상돼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아이스크림 가격은 일반 소매점 기준 30~40%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종합포털 참가

격 통계에서도 이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월드콘(롯데월드) 바닐라 평균 소매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1517원으로 2019년 1101원보다 37.8%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봉어짜만코(빙그레)는 1127원에서 1470원으로 30.4% 상승했다.

낙농가와 우유업계는 11일부터 아이스크림 주재료인 원유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8월 1일부터 1당 최대 26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유 가격 인상 시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과자와 빵 등 우유가 함유된 먹거리 제품 물가가 일제히 상승되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수 있다.

문현호 기자 m2h@



IBK기업은행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금융 최우수 은행 賞 3관왕 수상

ASIAMONEY
Best Bank For SMEs South Korea
아시아머니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Global Finance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The Asian Banker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아시아뱅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세계,
IBK기업은행에
집중하다

변화를 이끄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늦깎이 도전자의 시중銀 공략은 ‘토박이 세일즈’”

★ ‘은행의 별’을 말한다

⑩ 이해원 iM뱅크 부회장

2024년 6월 5일.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인 ‘iM뱅크’가 탄생했다. 57년 간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온 대구은행이 전국구 시중은행으로 새 출발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iM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처럼 기존 은행의 과점 체계를 깨고 새로운 ‘메기’가 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한다.

57년 대구은행, 올해 iM뱅크로 재탄생
‘지방에 본점 둔 첫 시중은행’ 성공 위해
李부회장 ‘인재육성·채용’ 핵심업무 맡아

분명한 체급 차이와 후발 주자의 한계는 부정할 수 없지만 iM뱅크는 ‘지방에 본점을 둔 첫 시중은행’으로서 성공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를 모두 갖춘 ‘뉴 하이브리드 뱅크’라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요인이 ‘적정 인력’이다. 그 어느 때보다 기존 직원들에 대한 연수와 인력 채용 등을 담당하는 영업지원그룹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그 중심에는 이해원 iM뱅크 영업지원그룹장(부회장)이 있다.

이해원 부회장은 최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iM뱅크 본점 영업부 14층 집무실에서 진행된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인재’ (육성 및 채용)”라고 밝혔다. 영업지원장인 그가 맡은 여러 업무 중 인사 관리에 약 70%에 달하는 관심을 쏟고 있는 배경이다.

iM뱅크의 성공적인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30년 이상 현장을 누빈 ‘기업 여신 전문가’로 통한다. 1985년에 대구은행에 입행한 후 포항영업부 기업지점장, 부산영업부 부장, 기업여신기획부 상무 등을 거쳤다. 입행 38년 만인 지난해 인사 관리·직원 연수·노사 업무 등 은행 영업에 필수적인 여러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승진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지만,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2015년 5월



이해원 iM뱅크 영업지원그룹 부회장이 대구 수성구 iM뱅크 본점영업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iM뱅크

포항영업부 기업지점에서 첫 지점장직을 맡았을 당시 동기들은 이미 두 번째 지점의 책임자(장)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남들보다 늦었기 때문에 절박함이 컸다”며 “그해 연말까지 ‘돈키호테식’으로 무모하리만큼 돌아다니면서 현장 영업에 힘을 썼다”고 회상했다.

그의 영업 방식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분위기를 살피고 소통하는 것이었다. 기업의 영업이익 등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느껴지는 정성적 지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 부회장은 “현장에 가면 조직 규모가 큰 곳임에도 분위기가 침체한 곳이 있는데, 그런 기업은 결국 몇 년 후 실적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기적으로 거래할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많이 가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점장을 맡기 전부터 꾸준히 기업 여신 부문 역량을 쌓아왔다. 90

년대 행원 시절 ‘본점 집중 지원 점포’로 꼽혀 기업 여신 업무량이 급증했던 이현공단지점에서 6개월가량 새벽 퇴근을 밥 먹듯 했고, 이후 5년 2개월 간 투자금융부에서 구조화금융 관련 업무를 맡으며 전문성을 길렀다.

이 같은 전문성이 영업지원그룹에서 부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는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깊이와 역량을 판단할 수 있어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고 육성하는데 효과를 본 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기업영업전문인력(PRM) 등 일부 인력 채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PRM은 2019년부터 수도권 영업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 4월 기준 2조5000억 원 규모의 기업대출 자산 확보에 기여했고 저원가성 예금과 외환거래 등 다양한 부수거래도 함께 유지했다. 올해 60여 명의 PRM

돈키호테식 현장영업... 성과·역량 증명
늦깎이 지점장 ‘발로 뛰는 영업’으로 성과
3년내 전국영업망 목표... 지역인재 선발

을 추가로 채용해 현재 서울 강남, 여의도 등에 있는 5개 센터에서 100명이 넘는 PRM이 활동 중이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PRM 인력과 센터를 더 늘릴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여신업무나 외환·수신업무 쪽에 강점이 있는 인력을 PRM으로 채용 중”이라며 “iM뱅크가 ‘3년 내 전국 영업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PRM 역시 전국 지점으로 확대 배치하고, 센터 수도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IT 분야 인력도 iM뱅크가 신경 쓰는 인력 풀이다. iM뱅크의 시중은행으로서의 목표 중 하나가 디지털 접근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iM뱅크는 모바일 뱅킹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디지털·정보보안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약 20명 채용했고, 다음 달부터 투입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인력 확보에는 ‘지역인재 발굴’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구 인력을 선발해 수도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각 지역에 보내는 형식이였다면, 시중은행 전환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업무 경험이 있는 인재를 뽑는 식으로 채용 방식을 바꿨다. 전국에 빠르게 뿌리를 내리려면 각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인력이 필요해서다. 시중은행 전환 후 첫 거점 점포인 원주지점의 7월 중순 개점을 앞두고 원주 지역 출신 전문인력을 선발 중이다.

이 부회장은 전문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행원들이 지역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소규모 학습조직 ‘MSG’, ‘1대1 맞춤 교육’ 등 현재 iM뱅크에서 진행 중인 연수 프로그램에 외부 전문가 강의를 늘리는 등 직원들의 시야를 넓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방은행의 특성상 기간 금융 기법이 나 상품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향후 진출할 충청·강원·호남·제주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 안에 전국에 14개 영업망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적정 인력을 확보해 현장에 투입, 정보를 수집·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래야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유하영 기자 haha@

“돈 되는 사업, 사고 팔고”... 대기업 화두는 ‘리밸런싱’

“구부러진 것은 펴고, 끊어진 것은 잇는다.”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경진 회장은 1953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공장에서 선경직물을 재건하기로 결심하며 이같은 일성(一聲)을 내뿜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현재 SK그룹은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해 구부러진 것은 펴고 끊어진 것은 잇는 ‘리밸런싱’ 작업에 한창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를 합병하고, SK네트웍스에서 스피드메이트와 트레이딩을 물적분할하기로 했다. SK어스온은 페루 LNG 지분을 매각했고, SK스퀘어는 크래프트 지분 전량을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정리했다. SK렌터카는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23일 각 기업 공시를 종합하면 SK를 비롯해 현대백화점·신세계·효성 등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합치고 쪼개며 사업재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경영 전망이 급변하면서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기업들은 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 분할을 통한 사업 전문화 등 경쟁력 강화로

SK이노·현대백 ‘합병’...SK네트웍스 ‘분사’
사업재편 시너지·계열분리 독립성 ‘노림수’

경영환경 변화를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SK이노베이션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SK E&S와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공시했다.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자산규모는 106조 원에 달하게 된다. SK그룹은 이달 말 경영전략 회의에서 두 회사의 합병 계획을 승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양사를 합병해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부터 신재생에너지까지 아우르는 초대형 에너지 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SK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 SK온과 SK E&S의 발전 자회사 및 LNG판매 사업을 합병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완전 자회사 현대홈쇼핑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현대홈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약 600억 원)과 자산이 유입돼 재무구조도 개

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원F&B도 온라인 사업 부문 자회사인 동원디어푸드를 흡수합병한다. 한편에선 계열사 쪼개기도 활발하다. ‘형제의 난’을 겪은 효성그룹은 이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2개의 지주회사로 분할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기존 지주사인 효성은 장남 조현준 회장이 맡고, 또 다른 지주사인 HS 효성은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맡게 된다. 업계는 향후 지분 정리 등을 통해 계열 분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한다.

SK네트웍스는 이달 이사회에서 자동차 관리 사업 부문인 스피드메이트와 무역을 담당하는 트레이딩을 물적분할해 분사하기로 의결했다. GS리테일은 이달 초 호텔 사업부의 인적 분할 결정을 공시했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몸집이 커진 대기업들은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지만,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는 ‘머물러 있으면 도태된다’는 의식이 강해졌다”며 “기업 합병과 분할, 매각, 인수가 그 어느 때보다 경영계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롯데손보 매각 28일 본입찰 우리금융 ‘적정가격’ 저울질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마치고 본입찰 참여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본입찰은 28일로 예정됐다. 우리금융 전략부문 사업포트폴리오부는 지난해 롯데손보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수 희망 가격을 도출하기 위한 자체 분석에 들어갔다.

우리금융이 롯데손보 인수 검토에 나선 것은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다. 지난해 순영업이익 중 이자이익은 89%, 비이자이익은 11%로, 비이자 이익 비중이 시중은행을 가진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이익이 줄어들 경우 실적 충격도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금융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다. 우리금융은 회사 경영에 재무적 부담을 안기고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인수합병(M&A)은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이때문에 시장에선 우리금융 인수 희망 금액이 한때 거론됐던 2조 원보다 낮은 1조 원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금융은 구체적인 인수 가격과 관련해선 일절 함구하고 있다. 정성원 기자 jsw@

다시 출렁이는 대출금리

셈법 복잡해진 주담대 차주

내달 스트레스 DSR 2단계

고정금리 지표인 금융채(은행채) 5년 물 금리가 내림세를 보이며 연 2%대 금리 대출상품이 등장했다. 반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반영한 대출금리는 소폭 오르고 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다음달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도 앞두고 있어 새로 대출받으려는 소비자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21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혼합형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연 2.94~5.57%다. 지난달(연 3.25~5.58%)보다 상단이 0.01%포인트(p), 하단이 0.31%p 내려가면서 최저 금리가 2%대로 떨어졌다.

은행 고정형(혼합형·주기형)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내린데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무보증, AAA) 금리는 21일 기준 3.454%로, 한 달 전(3.772%)보다 0.318%p 떨어졌다.

코픽스, 6개월 만에 상승 전환
금융채 5년물은 한달새 0.3%p ↓

고정·변동 금리 차 0.8~0.85%p

스트레스 금리 적용률 25→50%

‘변동형’ 대출한도 9% 정도 줄어

저축銀 등 제2금융권 확대 전망

반면 같은 기간 5대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3.74~6.42%다. 지난달(연 3.8~6.18%) 대비 상단이 0.24%p 올랐다.

은행권 변동형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6%로 전월(3.54%) 대비 0.02%p 올랐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섯 달 연속으로 떨어진 후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변동형과 고정형 대출 간 금리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 두 유형의 주담대 금리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유형별 금리(단위: 연%)				
	5월 21일		6월 21일	
	변동형	고정형	변동형	고정형
국민은행	3.8~5.2	3.25~4.65	3.74~5.14	3.09~4.49
신한은행	4.27~5.88	3.32~5.33	4.29~5.90	2.94~4.95
하나은행	5.145~5.545	3.459~3.859	5.072~5.472	3.175~3.575
우리은행	4.73~5.93	3.59~4.79	4.76~5.96	3.19~4.39
농협은행	4.18~6.18	3.38~5.58	4.42~6.42	3.37~5.57

※ 변동형: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 고정형: 금융채 5년물 기준 혼합금리 ※ 출처: 각 사

차는 21일 기준 0.8~0.85%p로, 5월 21일 기준 0.55~0.6%p보다 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에 비해 낮아지고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스트레스 DSR의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차주의 고민을 더하는 요인이다. 어떤 금리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

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금리 적용률이 기존 25%에서 50%로 확대된다. 하반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0.38%보다 더 오른 0.7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면 예컨대 소득 수준이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 주담대를 변동형으로 선택하는 경

우, 한도가 기존 3억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약 9% 줄어든다. 5년 동안 금리가 유지된 이후 변동금리 유형으로 전환되는 혼합형은 약 6%(2000만 원) 줄어든 3억 1000만 원, 주기형은 약 3%(1000만 원) 줄어든 3억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변동형이 아닌 고정형을 선택하면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도가 중요한 차주라면 고정형을, 그중에서도 5년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대출상품인 주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 달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의 범위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주담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범위와 금리 수준 등 제도의 세부 운용 방향을 발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과 2단계 시행 시 예상되는 효과를 검토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하영 기자 haha@

금융권 횡령 6년간 1800억… 회수율 10%도 안돼

‘은행’ 1533억으로 전체 횡령액 85% 차지
3년 새 급증… 당국 ‘책무구조도’ 도입 방침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주문에도 금융권 횡령 규모가 약 6년 동안 18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2018년부터 지난 14일까지 1804억2740만 원에 달한다. 이중 환수된 금액은 175억5660만 원으로 회수율이 9.7%에 불과했다.

이번 자료에는 우리은행 100억 원 횡령 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횡령액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자금을 가로챈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이번 사고를 횡령이 아닌 사기로 분류해 보고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85%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은 164억5730만 원(9.1%), 증권은 60억6100만 원(3.4%), 보험은 43억2000만 원(2.4%), 카드는 2억6100만 원 등이다.

횡령 규모는 2021년 이후 급격히 늘었다. 2018년 56억6780만 원, 2019년 84억5870만 원, 2020년 20억8290만 원이었는데, 2021년 156억9460만

원, 2022년 827억5620만 원, 지난해 642억6070만 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올해 발생한 횡령 사건은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 원·수출입은행 1200만 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 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 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 원·농협은행 330만 원·하나은행 40만 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 원·코리안리 6억7500만 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 원) 등 총 11건(13억9850억 원)으로, 매달 평균 1.8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조직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소셜·그린·휴먼·글로벌 바탕” 새마을금고 ‘ESG 경영’ 박차

4대 분야 정해 ESG경영 체계화
‘그린MG’ 전 국민 참여 행사로
‘사랑의 줌도리’ 年 1→2회 확대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힘쓰고 있다. 2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이웃의 역할을 위해 4대 핵심 분야(소셜MG·그린MG·휴먼MG·글로벌MG)에서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셜MG 분야에서는 저출생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생애 첫 통장 개설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을 1인당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또, 출생아를 대상으로 최대 연 12%의 금리를 제공하는 ‘MG희망나눔 융융저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총 78억 원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린MG는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다. 2021년부터 4년째 ‘그린MG 걷기 좋은 날’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걷기 실천을 통한 걷음 기부를 해왔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만 참여하던 내부 행사였지만, 올해에는 전 국민이 참여



할 수 있는 행사로 확대돼 약 1만7000명이 참여했다. 목표 기부 걸음 수인 10억 걸음을 초과 달성해 배려계층 노인 61명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1억 원을 지원했다.

휴먼MG는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문화·생활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 분야다. 1998년 시작된 ‘사랑의 줌도리’ 운동의 누적 모금액 1143억 원은 결식아동, 가족돌봄아동 등 지역사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됐다. 올해부터는 추진 기간을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했다.

글로벌MG는 전 세계 금융소외지역에 지속가능한 새마을금고 모델을 전파하는 기술 원조다. 한국 대표 금융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을 활용해 2016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우간다, 라오스 3개국에 57개 새마을금고가 설립됐다. 유하영 기자 haha@

SC제일은행, 美달러화 정기예금 ‘최고 연 5.2%’ 특별금리

1만~10만달러 첫 거래 고객 대상
28일까지…2000만달러 모집덴 종료

SC제일은행은 미국 달러화 정기예금(3개월제) 가입고객에게 최고 연 5.2%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벤트는 이달 28일까지다.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외화정기예금에 미화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2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영업점에서 원화를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



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100% 환율 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 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은 또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인 초이스 외화보통예금(미 달러화)의 특별금리 이벤트도 이달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

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3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1만 달러 이상~5만 달러 미만 4.0% △5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4.2% △10만 달러 이상~30만 달러 이하 연 4.5%의 특별금리를 가입일로부터 2개월간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초이스 외화보통예금은 최근 1개월간 평균 잔액이 미화 5000달러 이상이면 해외 송금 수수료를 1회 면제해준다. 최근 2개월간 평균 잔액이 미화 1만달러 이상이면 평균 잔액 범위 내에서 외화 현찰 수수료를 1회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한화손보 ‘유방암 예후 검사비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7월 출시 여성건강보험에 반영

한화손해보험은 유방암 예후 예측 검사비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이 차병원과 협업체 기획한 이 특약은 유방암 환자의 유전자를 활용해 맞춤 치료와 재발 여부 예측을 위한 검사비를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암 환자가 검사를 통해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면 부득이하게 항암 치료를 받으며 발생할 수 있는 △난임 △불임 △탈모 △우울증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특약의 배타적 사용권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한화손보는 오는 7



월 출시하는 여성 건강보험 상품에 이 특약을 반영해 판매할 예정이다.

김재은 기자 dove@

〈발왕산·發王山〉

‘포이 나는 山’ 정기로… 푸드·관광·레저 세계에 알릴 것

인터뷰

신달순 모나용평 대표

“식품업계의 방탄소년단(BTS)을 꿈꿉니다.”

재임 8년 차를 맞은 신달순(사진) 모나용평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7월 ‘모나용평 웰라이프’라는 식품사업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대표는 “2021년과 2022년은 상품 개발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면밀히 분석했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상품의 검증기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용평리조트에서 사명을 바꾼 모나용평의 사업은 △리조트 운영사업 △콘도 분양 △F&B 식품사업 등 크게 3가지다. 2017년 8월 대표로 취임한 신 대표는 리조트 운영과 콘도 분양만으로는 미래 먹거리가 없다고 판단해 식품 사업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현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김치를 비롯해 수국차, 막걸리, 수국빵, 김 등을 판매하고 있다. 모나용평이 자리한 발왕산에서 자란 수국 등의 천연재료를 활용, 설탕과 아스파탐이 없는 ‘건강한 먹거리’가 콘셉트다. 향후 라면시장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대표는 “국내 대형마트 입점을, 해



재임 8년, 용평리조트→모나용평 사명 변경
리조트·콘도분양·식품 ‘3대 사업’ 이끌어
발왕산의 스토리텔링으로 관광 콘텐츠 ↑
천연재료 사용한 식품…업계 BTS될 것

외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대만 등으로 확대 전략을 갖고 있다”면서 “자체 생산할 김치를 제외한 모든 제품의 레시피를 파트너사에 제공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형태의 운영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에는 2023년 대비 50배의 매출 실적을 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식품 끌고 리조트·콘도 밀고…실적

청신호=리조트 운영사업은 국내외 확장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최근 일본 아이노리조트 인수로 리조트 해외 체인화에 시동을 걸었고, 전라북도 고창과는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단지내 대중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무대인 평창에서는 발왕산 천연 주목군락과 산목련군락을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 관광케이블카 이용객 수를 코로나19 이전(2018년 28만 명) 대비 5배 늘렸다.

콘도 분양사업은 하이엔드를 중심으로 수익성을 높여가고 있다. 신 대표는 “총 분양예정액 4145억 원, 총 공사예정원가 3032억 원 규모의 ‘루송채’ 프로젝트는 내년 분양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콘도를 개발하고 분양해 리조트 이용객 및 운영수익을 증가시키고, 다시 콘도 개발 및 분양을 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모나용평의 실적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나용평은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1%, 30% 급증했다. 그는 “현재 상승세는 하반기까지 무난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도(매출 2116억 원·영업이익 214억 원)의 2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명문 CC를 보유한 아이노리조트 개발의 인수를 통한 골프·리조트 사업 체인화의 시너지가 반영되면 성장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정적인 실적을 뒷받침하는 리조트 운영 부문의 확장과 수익성 높은 건설 분양 부문의 지속 성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나용평은 주가부양과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5월에는 신한투자증권과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대표는 “시장 유통 물량을 줄여 주가 부양 효과를 발생시키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운영 전략을 펼칠 계획”이라며 “다만,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회사의 성장과 이익 실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적으로 말하겠다’고 강조한 신대표는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갖고 노력해 2033년에는 1조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발왕산 스토리텔러’ 신 대표=신 대표는 ‘발왕산 스토리텔러’다. 스키장만 덩그러니 있던 리조트에 발왕산의 스토리를 입혀 관광 콘텐츠로 탈바꿈시켰다. ‘왕을 탄생시킨다’는 뜻을 담은 발왕산에서 생명의 근원인 물을 찾았다.

약수터를 만들었고, 발왕산의 긍정 기운을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짝을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을 곳곳에 만들었다. 산 정상까지 이어진 무장에 데크길은 유모차와 휠체어도 편안하게 이동하며, 모나용평이 들려주는 발왕산 스토리를 들을 수 있다.

도전과 변화 그리고 혁신 없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신 대표의 생각이다. 그가 ‘발왕산 스토리텔러’로 변모한 이유다.

권태성 기자 tskwon@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40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외 운용자산(AUM)이 5월 말 기준 340조 원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AUM의 40%에 달하는 147조 원은 해외에서 운용되고 있다. 해외 진출 21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이런 수준의 해외 AUM을 확보한 국내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주도로 2003년 해외 시장에 진출해 미국과 베트남,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영국,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홍콩 등 16개 지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가 글로벌 시장 공략에 큰 역할을 했다. 미래에셋자

산운용이 운용하는 585개 글로벌 ETF의 총 순자산은 170조 원이다. 약 15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전체 ETF 시장 규모보다 크다.

유망한 해외 ETF 운용사 인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 회장은 2011년 캐나다 호라이즌을 시작으로 2018년 미국 글로벌엑스, 2022년 호주 ETF 시큐리티

스, 2023년 호주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운용사 스타스팟 등을 인수했다.

박 회장이 선보인 리더십에 국제경영학회(AIB)는 박 회장을 ‘올해의 국제 최고 경영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해당 상의 국내 기업인 수상은 고(故) 최중현 SK그룹 회장 이후 역대 두 번째다. 박 회장은 7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AIB 2024 서울’에 참석해 개최식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윤혜원 기자 hwyoon@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글로벌엑스(Global X)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전광판에 광고되고 있다. 사진제공 미래에셋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가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광고 문의 (02) 799-6727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 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언젠가부터 당신의 금융생활이
달달해졌다면

그건 아마 위니프렌즈 때문일 거야

가는 곳마다 혜택을 주고
플렉스할 때마다 할인을 받고

지금 당신의 가방에도
금융행운템, 위비를
달아보세요

자꾸 좋은 일이 생길지도!

우리 결엔 위비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자산운용

우리은행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종합금융
우리신용정보

우리자산신탁
우리펀드서비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주전이 돌아왔다”… 용산·한남·미아서 대형사 불꽃경쟁

남영업무지구2·한남4·미아2
대형 재개발 하반기 입찰 앞뒀

“시장 상승 기대” “속단 이르다”
오랜만의 수주경쟁…전해 갈려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으로 한동안 도시
정비사업지에서 자취를 감췄던 수주전이
하반기 서울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용산구와 강북구 일대 정비사업지에서 시
공권 확보를 위한 수주전이 진행될 전망
이다.

우선 남영동 업무지구 2구역 재개발 사
업에선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출사표를 던졌다. 양 사는 이달 21일 시공
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란히 응찰했다.
이 사업은 4호선 숙대입구역과 1호선 남
영역 사이에 위치한 1만7658.8㎡ 부지를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65가구와 오

피스텔 80실, 업무시설 등으로 재개발하
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약 7000억
원이다.

남영동 업무지구 2구역이 위치한 용산
은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사가 위치한
‘텃밭’으로 평가된다. 시공권 사수가 곧
자존심으로 직결되는 상황으로, 조합 관
계자들과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만나며 민
심을 다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도시정비팀 용산 사업소가
남영동 업무지구 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그만큼 조합원들과 밀도 있는 접촉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네덜란드 설
계사와 협업해 전 가구 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한 프라이빗 테라스와 세대 별 평면
특화 설계, 아파트 3개 동을 스카이라인
지로 연결해 남산과 용산공원을 영구 조
망할 수 있는 뷰를 구현할 예정이다.

용산구의 또 다른 격전지는 한남4구역
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가 홍보에 나서며 입찰을 저울질 하고 있



다. 이들은 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입찰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한남4구역 재개발은 지하 7층~지
상 22층, 51개 동, 2331가구를 짓는 사업
으로, 예상 공사비는 1조7000억 원에 달
한다.

특히 이들 3사의 올해 전적이 엷히고 설
켰다는 점에서 수주전 향방에 더욱 관심
이 쏠린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1월 부산 축진2-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
정에서 대결, 포스코이앤씨가 승기를 잡
았다. 이어 3월에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

건설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에서 경
쟁해 현대건설이 시공권의 주인이 됐다.

강북구로 넘어오면 미아2재정비축진
구역(미아축진2구역)에서도 수주전이
예열 중이다. 미아축진2구역은 미아동 일
대 17만9566㎡를 최고 34층, 총 3519가
구 규모로 재개발 하는 사업이다. 미아재
정비축진구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커 사
업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장에선 롯데건설과 GS건설이 입찰
을 염두하고 활발하게 홍보를 진행 중이
다. 롯데건설은 일대 시세를 견인 중인

‘롯데캐슬 클라시아’를 시공한 이력이 있
는 만큼, 적극적으로 수주 의지를 드러냈
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수주를 위해 적극
적으로 활동 중이며 최적의 사업조건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GS건설도 미아2구역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입찰 검
토 중인 주력 사업지 중 하나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동안 사라졌던 도시정비사업
에 수주전에 나타나는 것을 두고 일각에
서는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속단은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여전히 금리
가 높고 특정지역에서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시장 상승을 점치기는 이르다”면서
“수주전이 예상되는 지역들은 워낙 알짜
지역으로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곳
들”이라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3기 신도시 4개 단지 1차 민간참여사업

LH, 우선협상자에 대우컨소시엄 선정

총 2699가구 7413억 규모

2·3차 포함 연내 착공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교산
A2BL 등 4개 단지의 제1차 민간참여사
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컨소시
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LH는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
참여사업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27년까지 전체 LH 인허가 물량의 30%가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참여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
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
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4개
단지는 총 2699가구 7413억 원 규모다.
지구별로는 △하남교산 A2BL(1115가
구, 2799억 원) △남양주왕숙 B-1BL
(569가구, 1866억 원) △남양주왕숙 B-
2BL(587가구, 1821억 원) △남양주왕
숙 A-03BL(428가구, 927억 원)이다.

LH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컨소시
엄과 오는 7월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12
월 착공해 27년 준공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제1차 공모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중 총 5조 원(23개 BL, 1만8978
가구) 규모의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조기
추진한다.

지난 3월 시행된 제2, 3차 공모(△부천
대장 A5BL, A6BL △인천검단 AA19
BL)의 경우 오는 28일 심사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할 계
획이며, 이달 말 추진되는 2조 원 규모의

추가 공모(△하남교산 S-11 BL △하남
교산 S-11BL △남양주왕숙 S-13BL △
남양주왕숙 A-27BL △남양주왕숙 S-9
BL △남양주왕숙 A-25BL △의왕초평
A-4BL △남양주왕숙 S-3BL)건은 오
는 8월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
정할 예정이다.

LH는 그간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건설
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현실화
△사업 정산방식 선택권 부여 △참여 절
차 간소화 등 개선된 사업 참여 여건을 통
해 주택공급 촉진에 앞장설 방침이다.

오주현 공공주택본부장은 “최근 주택
공급량 부족에 따른 주거불안 우려 해
소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참여사
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우
수한 기술력과 공공의 역할을 더해 안정
적인 주택공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포스코이앤씨, 노사 손잡고 “위기 극복” 결의



포스코이앤씨 노사가 21일 공동 실천 결의식을 가진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김원호 노동조합위원장, 김윤중 노경협의회 근로자 대표, 전종선 사장, 신경철 경영지원본부장, 최용석 안전기획그룹장. 사진제공 포스코이앤씨

임원급여 10~15% 자진반납

포스코이앤씨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전
환하기 위해 21일 인천 송도사옥에서
‘노사 공동 실천 결의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결의식에는 전종선 사장과 신
경철 경영지원본부장, 김윤중 노경협
의회 대표, 김원호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대표 18명이 참여했다. 이자
리에서 ‘노사 합동 직원 성장·발전 지
원 TF’를 하반기에 운영할 것을 약속
했다. 이 TF를 통해 시대 변화에 따

라 점차 다양화되는 직원들의 라이프
스타일 대응 등 회사만의 시그니처 복
리후생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임원·직책자’는 회사 경영목
표 달성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솔
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실제 포스
코이앤씨 임원들은 임금의 10~15%
자진 반납 및 회의비 30% 감축 등 희
생적 자세로 회사 위기극복에 앞장서
고 있다. ‘직원’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임금조정을 회사에 위임하
고, 연차100% 사용 등 경비절감을
통해 회사의 어려움을 분담하며, 기
본의 실천으로 경영위기 극복에 동참
하기로 했다. 하지는 기자 hje@

삼성물산, 5112억 규모 부산 광안3 재개발 시공사 선정

삼성물산건설부문이 부산 수영구 광안
3재개발정비사업(광안3재개발·사진 조
감도)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광안3재개발조합은 22일 개최한 총회
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539-1번지 일대에 지하4층~지상35층 아
파트 7개동 108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
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5112
억 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수영구 최초의 래미안이자
수영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선
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광안3재개발의
새로운 콘셉트로 ‘래미안 수영 더 퍼스트



(THE FIRST)’를 제안했다.

글로벌 건축 디자인 그룹 저디
(JERDE)와 협업하여 외관에는 폭포 물
결을 형상화한 버티컬 디자인, 상부는 범
선의 뜻을 모티브로 한 옥탑 디자인을 적
용했다. 또한 파노라마 뷰로 광안리 바다
를 즐길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는 기자 hje@·사진제공 삼성물산

금주의 분양캘린더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4691가구가 분
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
면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4691가구(일반분양 2737가구)가 분양
을 시작한다. 서울시 동작구 ‘동작보라매

역프리센트’, 경기도 오산시 ‘롯데캐슬위
너스포레’,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그랜드
파크자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를 가리는 단지는 6곳이다. 25
일 경기 고양시 ‘e편한세상시티원당’, 인
천 동구 ‘리아츠더인전’, 강원 홍천군 ‘홍
천에듀포레휴티스’, 전남 화순군 ‘힐스테
이트화순2차’가 당첨자를 발표한다. 26

일에는 경기 군포시 ‘금정역푸르지오그
랑블(1BL)’, 27일 인천 서구 ‘푸르지오
스타셀라49 당점차 발표 예정이다.

모텔하우스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경기도 성
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역헤리스톤’,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과천디에트르퍼
스티지’ 등 10곳이 오픈 예정이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6/24 (월)	접수	인천	서구	청라동	푸르지오스타셀라49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매천리골든렉스시움 1순위
6/25 (화)	접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 1순위
		경기	오산시	양산동	롯데캐슬위너스포레 1순위
		인천	서구	당하동	인천검단AA35-2(영구임대) (~6/28)
		전남	순천시	풍덕동	순천그랜드파크자이(2BL) 1순위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매천리골든렉스시움 2순위
6/26 (수)	접수	충북	청주시	가경동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2차 1순위
		경기	과천시	문원동	과천디에트르퍼스티지(S2)
6/26 (수)	접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 2순위
		경기	오산시	양산동	롯데캐슬위너스포레 2순위
		인천	서구	당하동	인천검단AA35-2(국민임대) (~6/28)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6/26(수)	접수	전남	순천시	풍덕동	순천그랜드파크자이(2BL) 2순위
		충북	청주시	가경동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2차 2순위
6/27(목)	오픈	충북	청주시	송절동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A8)
6/28 (금)	오픈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경기	성남시	금토동	판교테크노밸리중흥S클래스(A3)
		경기	성남시	산성동	산성역헤리스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파밀리에Ⅱ(1BL)
		부산	사상구	염곡동	더샵리모넬트
		대전	대덕구	유내동	쌍용더플래티넘네이처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우정에피트
		경북	구미시	봉곡동	힐스테이트구미더퍼스트

(주1)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2)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오피스텔 ※자료:부동산R114

의대 ‘지방 유학’ 가시화… 충청권은 벌써 초등생 순유입

종로학원, 전국 초등학교 분석

지난해 지방 6개 권역 중 충청권에서 유 일하게 초등학생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인프라와 정부의 지방의 료 강화 방침 등이 예고된 지난해부터 이미 ‘의대 지방 유학’이 가시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종로학원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6299개 초등학교 데이터를 분석한 권역별 초등학생 순유입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청권 초등학교 전입 학생 수에서 전출 수를 뺀 결과 237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권(160명↓)과 호남권(281명↓), 강원권(372명↓), 제주권(399명↓), 부산·울산·경남권(978명↓) 등 다른 지방 권역 모두 학생수가 순유출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통한 지방의 료 강화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이미 지역안결적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

전국 학생수 감소 추세에도

6개 권역 중 유일 상승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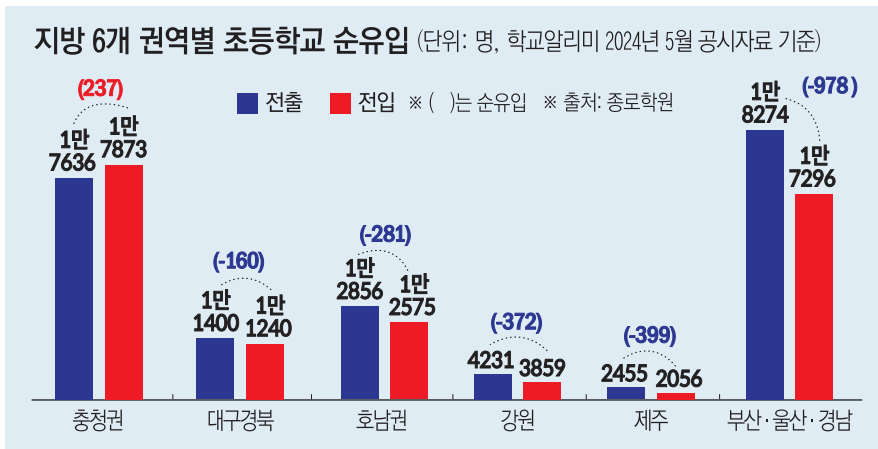
정부 ‘지방 의료 강화’ 영향

‘지역인재전형’ 최대 수혜지

의대 노린 지방 유학 붐 예고

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성모·아산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에 따르면 총 4610명의 전국 의대 정원 중 71.2%(3284명)를 비수도권에서 선발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올해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권고하면서 지역인재전형은 전년보다 888명 늘어, 총 1913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를 3년 동안 다니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부터 6년간 해당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 이에 의대 진학을 노리고 미리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방 유학’ 움직임이 짙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출입에 따른 순유입은 신도시 개발 등 요인도 상당히 작용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 순유입 발생은 교육 인프라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

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 확대에 향후 의대 입시 결과 지역별 유불리 상황 결과가 향후 초등학생들의 전입, 전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충청권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인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충청권은 2024학년도에 의대 지역인재전형으로 170명을 선발했지만, 2025학년도에는 464명으로 총 294명이 늘어났다. 이어 대

구·경북 183명(174명→357명), 부산·울산·경남 172명(295명→467명), 호남권 140명(303명→443명), 강원권 84명(63명→147명), 제주권 15명(20명→35명)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에서 전학을 가장 많이 가는 학년은 2학년이 20.0%(2만 867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학년 19.4%(2만 7764명), 4학년 17.6%(2만 5111명), 5학년 17.2%(2만 4618명), 6학년 12.9%(1만 8519명), 1학년 12.8%(1만 8371명) 순이었다.

중학교 배정이 대체로 초등학교 6학년 10월말 거주지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 및 학부모가 미리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표는 “향후 입시정책 변화 등을 종합할 때 기존 교육특구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고, 지방권에서는 지역인재전형에 유리하고 해당 지역이 교육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해외 파견 사망근로자… 法 “산재 아냐”

“현지법인 소속… 본사 지휘 밖”

유가족 소송 원고 패소 판결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중국 파견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A 씨는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2020년 7월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배우자인 B 씨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법률에 따라 해외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B 씨는 A 씨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지시를 받고 중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근로 장소가 중국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 소속돼 본사 지휘 따라 일했다”는 것이다. 또 A 씨 월급이 본사와의 연봉계약에 의해 결정됐고 퇴직금에 중국 근무 기간이 포함돼 산정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중국 현지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지만,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은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별도의 독립된 실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을 본사 근무기간으로 인정해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부는 “이는 사망한 B 씨에 대한 배려로 보인다”면서 “이런 사정만으로 B 씨가 실질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소속돼 그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박꽃 기자 pgot@



여의도에 모습 뽐낸 열기구 ‘서울의 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상공에 보름달 모양의 열기구 ‘서울의 달’이 시험 비행하고 있다. 계류식 가스 열기구인 ‘서울의 달’은 7월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시민과 관광객 대상으로 정식 운영된다. 연합뉴스

‘조국 수사’ 배성범 전 고검장, YK 대표 변호사 된다

내달부터 ‘형사 총괄그룹’ 맡아 ‘조국·울산시장’ 수사 총괄 경력 연수원 동기尹대통령 인연 눈길



서 법무법인 YK는 21일 기존 형사그룹을 확대 개편한 ‘형사 총괄그룹’을 발족했다.

배 전 고검장은 “YK는 10대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에 직영·지사를 갖추고 있고, 24시간 조력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법률 문화의 보편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이 뚜렷해 고민 없이 합류했다”고 말했다.

배 전 고검장은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대검찰청 강력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배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이

기도하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비리과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불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2020년 1월에는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을 지내다 2021년 5월 검찰을 떠났다.

배 전 고검장은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연수원 30기)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임이 제한된다.

중량감이 큰 전관 영업에 연달아 성공한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까지 YK에 가세해 대표 변호사로서 승무팀을 총괄하고 있다.

전아현 기자 cahyun@·김이현 기자 spes@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정책으로 ‘행정의 노벨상’ 수상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행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공공행정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연합(UN) 공공행정상(UNPSA)’ 본상(Winner)의 영예를 안았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4년 UN 공공행정 포럼 및 공공행정상 시상식’에 참석해 ‘UN 공공행정상’을 받는다.

UN 공공행정상은 UN 경제사회국(UNDESA)이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해 전 세계 공공행정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이는 2022년부터 격년으로 선

정해 시상하며, 총 3개 분야(공공기관 혁신·양성평등 공공서비스·기후 변화 대응)에서 본상, 입선, 특별상을 시상한다.

시는 올해 UN 공공행정상에 신청한 총 73개국 400개의 정책 중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유일한 본상 수상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올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총 15개국 중 국내 수상도 서울시가 유일하다.

오 시장은 “UN에서도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재빈 기자 chaebi@

협력사 전담팀 운영... 상생펀드 1.4조 조성

SAMSUNG

삼성전자가 협력회사 전담 조직을 통해 상생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4년 국내 기업 최초로 해당 조직을 신설해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5년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회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거래 대금 지급 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17년 1·2차 협력회사간 거래대금 지원용 물대지원펀드(5000억 원), 2018년 3차 협력회사 전용 물대지원펀드(3000억 원)를 조성해 협력회사간 거래대금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다.

또 원자재 가격변 안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1조4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기술개발·설비투자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아울러 협력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국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삼성전자는 3월 28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2024 상생협력 데이'를 열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소개하는 '우수기술 설명회'와 사업화 기술을 소개하는 'Biz 기술 설명회' 개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개방해 지난해까지 누적으로 약 2100여 건의 특허를 무상 양도했다. 2013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공동투자형기술개발사업'에 지원금을 출연, 약 200억 원을 지원했다. 2022년에는 신규 펀드 300억 원을 추가 조성해 차세대 기술과 ESG 기술 확보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난치병 아동 소원 이뤄주는 봉사단 발족



SK그룹은 글로벌 경기 부진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사회공헌을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은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자원봉사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9일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 아동 소원성취 자원봉사단 '위시 메이커(Wish Maker)' 제1기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의 MZ 세대 구성원 6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08년부터 난치병 아동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벌여왔고, 그동안의 지원금액이 총 30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17년부터는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기본급 1%를 기부해 조성한 1%행복나눔기금으로 지원해 왔다.

SK실트론도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대표 기업이다. 지난달 8일 구미지역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 구미시, 구미상공회의소와 'SK실트론과 함께하는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위시메이커' 1기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반도체스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 12개 고등학교 2700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해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도 사회공헌에 힘을 보탰다. SK브로드밴드는 최근 'With, 함께여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복'을 주제로 청소년과 소통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하는 '2024년 블러썸(Blossom) 청소년 음악제'를 개최했다.

파트너사와 국내 車부품 산업 발전 이바지



현대차·기아는 협력사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리더'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다.

협력사의 성장이 현대차·기아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현대차·기아의 성장이 다시 협력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즉 상생경영을 통해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현대차·기아의 목표다.

현대차·기아는 협력사와의 신뢰와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거래와 동반성장을 이뤄 가고 있다. 협력사들의 평균 거래 기간은 35년(2022년 기준)으로 이는 국내 중소 제조업 평균 업력인 13년(2021년 기준)의 약 2.7배 높은 수치다. 13년 이상 거래하고 있는 협력사는 97%에 달한다.

현대차·기아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들의 평균 매출 규모는 2001년 733억 원에서 2022년 3225억 원(추정)으로 연평균 7.3% 지속 성장했



현대차·기아는 4월 25일 고용노동부와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현대차·기아

으며 협력사 당 평균 매출액은 4.4배 증가했다.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회사는 2001년 62개 사(전체 협력사 중 21%)였으나 2022년에는 155개 사(61%, 추정)로 경증 뛰었다.

많은 협력사가 현대차·기아의 해외공장에 동반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1997년 34개사에 불과했던 해외 동반 진출 1·2차 협력사는 2022년 730개사로 대폭 증가했다.

납품대금 조기지급... 탄소배출 감축 컨설팅



LG가 협력 회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상생 경영 강화에 나섰다.

LG는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납품대금을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8개 계열사는 총 1조2500억 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대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했다. 협력사들이 원자재 대금,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중되는 자금 부담을 줄여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함이다.

LG 각 계열사도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협력사에 탄소배출 감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3자 검증을 확대해 시행한다. 협력사 15곳을 대상으로 이달까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동반성장 상

문혁수(아랫줄 왼쪽 다섯 번째) LG이노텍 대표가 '2024 동반성장 상생데이'에서 협력사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LG

LG이노텍은 2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2024 동반성장 상생데이'를 개최하고 100여 개의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G이노텍은 협력사를 위해 금융, 기술, 경영, 교육 분야에 걸친 다방면의 상생협력안을 추진한다. LG화학은 협력업체에 신기술 및 개발 인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공방시설 보수...취약층에 김치 나눔



포스코1%나눔재단이 '체인지 마이 타운(Change My Town)' 사업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사업 규모와 지역을 넓혀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체인지 마이 타운은 2019년부터 운영해 온 포스코1%나눔재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역사회에 개선이 필요한 시설과 지원 활동 등을 기부자인 임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까지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포항·광양지역뿐만 아니라 포스코그룹 사업장이 있는 인천·성남 등 여러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이앤씨·포스코퓨처엠·포스코DX 등 주요 사업회사까지 함께 참여한다.

포스코 포항 제강설비부에서는 포항시 북구 중앙로의 문화예술작가 모임인 꿈틀로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했다. 다수의 장애인작가가 활동 중인 꿈틀로문



포스코 직원들이 장애인 작가를 위해 꿈틀로에 위치한 작가 공방에 계단 경사판을 제작하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

화거리를 찾아가 공방의 계단 경사판을 설치하고, 노후 등기구 교체·데크 도색 등 보수활동을 지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지원본부 직원들은 직접 김치를 담가 인천지역 내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 주민에게 배송하며 주위에 온기를 나눴다. 포스코이앤씨 울촌 광석리톱 상용화 PJT 직원들은 지체장애 어린이들이 있는 광양 소재 특수어린이집의 옥상 테크를 수리하고 꽃밭을 조성했다.

금융·경영·기술 지원 등 상생 생태계 구축



한화는 그룹의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협력사 관리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 생태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한화는 4대 실천 전략인 금융지원, 경영·기술 지원, 교육·인력 지원, 열린 소통 등을 통해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국내외 여러 금융기관과 협력해 상생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경영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우수 협력사에 대해서는 현금성 인센티브, 계약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협력사 근로자 임금 보호 시스템을 통해 노무비 체불을 방지하고 있다.

금융지원 외에도 경영닥터제 등 생산성 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협력사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도 도모한다. 인력 채용이나 회사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부담 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월 14일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한화

감을 위해 '한화그룹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를 그룹 주요 계열사와 함께 개최하기도 했다.

협력사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한화는 지속해서 상생 간담회 및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화 건설부문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멕시코 현지 유통업체와 1:1 수출 상담회



롯데그룹이 국내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파트너사 초청 콘서트 등을 진행하며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롯데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2024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했다.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에서 엑스포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에는 뷰티, 패션, 식품, 생활용품 분야의 중소기업 100개사가 참가했다. 그 중 마스크팩, 클렌저, 떡볶이, 김스낵 등 멕시코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을 기대하는 47개사는 현지에서 유통업체들과 1:1로 수출 상담회를 가졌다. 2018년 태국에서 처음 열린 이 엑스포는 해외 진출을 꿈꾸는 중소기업들에게 판로개척의 교두보로 떠올랐다. 작년 까지 총 1300여개 기업이 참여했고 약 9000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누적 상담 실적은 7억 달러(약 9600억 원)에 달한다.

또 롯데그룹은 3월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2024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에서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롯데홈쇼핑

파트너사 임직원 1300명을 초청, '롯데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를 개최했다. 롯데 파트너사 임직원과 문화 공연을 통해 교감하며 더욱 화합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더 높이, 더 멀리! 같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한 이번 콘서트에 앞서 롯데 관계자와 파트너사 대표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원 점등식도 했다. 콘서트에는 트로트 가수 손태진과 댄서 허니제이, 뮤지컬 배우 바다 등이 출연했다.

中企 친환경 인증·해외 판로 개척 지원



이마트가 중소기업 친환경 상품 인증 지원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며 상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ESG경영 일환으로 해마다 20개 내외의 자체 브랜드 상품에 대한 친환경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중 친환경 인증을 모르거나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이마트는 또한 지난해 34개 중소 협력사 상품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을 지원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농업회사법인 푸르메소셜팜에 원물 상품화와 표고버섯 상품의 패키지 디자인, 용품 구매를 지원해 유통 효율성을 높였다. 또 한울생약에는 물티슈를 친환경 패키지로 변경하도록 패키지 제조 금형 구매를 지원했다.

이마트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와 함께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작년 10월 동반위와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



이마트가 협력사 패키지 개선을 지원한 노브랜드 주요 상품. 사진제공 이마트

약'을 체결하고 1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중소기업 대상 ESG 전문 교육과 우수기업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인증 기업에는 금리 우대와 수출지원 서비스, 환경·에너지 기술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이마트는 해외 유통망이 없는 중소 협력사의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해외 판로 지원 사업 영향으로 524개 협력사 6084개의 상품이 8개국으로 수출돼 125억 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사랑의 김장 김치·헌혈 십수년째 계속



효성은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주변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효성은 매년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2008년부터 16년째 꾸준히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임직원들이 헌혈 후 기증한 헌혈증은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돼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사용된다. 헌혈 행사는 본사 외에도 울산, 구미, 용연, 창원 등 주요 지방 사업장에서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효성은 지난해 12월 마포구청을 찾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를 1500세대에게 전달했다. 효성은 2007년부터 김장 김치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총 2만2500 세대에 김치를 전달했다.

효성은 울산중구시니어클럽을 통해 김장 김치를



효성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효성

구매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사회 환원을 돕고 있다. 울산중구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다.

또 효성은 마포구청에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위한 성금 4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효성의 후원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사용된다.

지속 가능 '업사이클링' 제품 대거 출시



CJ제일제당은 지속 가능성을 갖춘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지구 환경과 기후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다. 특히 푸드 업사이클링을 통해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고 있다. 2022년 론칭한 푸드 업사이클링 스낵 브랜드 '익사이클 바삭칩'은 깨진 조각쌀과 콩 비지 등 식품 부산물을 30%가량 함유한 고단백 영양 스낵이다. 바삭칩 3종(오리지널, 핫스파이스, 트러플)이 있다.

CJ제일제당은 푸드 업사이클링 스타트업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식품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투자를 진행한 식품 스타트업 '리하베스트(Re:Harvest)'와 '에스앤이(SNE) 컴퍼니'가 제품·서비스화를 통해 성장하며 사업적 시너지를 내고 있다.

또 CJ제일제당은 리하베스트에 제분 부산물로 버려지던 밀기울(밀 속껍질)을 제공하고, 리하베스트는 이를 대체 밀가루인 '리너지 밀기울분'으로



익사이클 바삭칩 3종. 사진제공 CJ제일제당

재탄생시켰다. 리너지 밀기울분은 2월부터 CJ푸드빌 푸레주르 식빵 2종(착한빵식 통밀식빵·고소함 이톡톡 곡물식빵)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 CJ제일제당은 이달 생분해성 플라스틱 PHA를 적용한 '러듀얼(LAUDUAL) 칫솔'을 선보였다. 칫솔대에 석유계 플라스틱 대신 PHA와 PLA(산업 생분해 소재) 등 100% 바이오 소재를 적용했다. 칫솔모에는 재활용(PCR·Post-Consumer Recycled) 소재를 절반 이상 사용했다.

몽골에 20년간 식림... 여의도공원 2배 규모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사라는 정체성에 맞춰 상생경영의 범위를 해외로 넓히고 있다.

대한항공이 20년째 진행 중인 몽골 식림 활동이 대표적이다. 대한항공은 2004년부터 매년 임직원 100~200명이 참여해 몽골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 '바가노르구'에 나무를 심어왔다.

임직원들이 20년간 심어온 나무는 12만5300여 그루, 숲면적은 44만 제곱미터(m²)에 달한다. 서울 여의도 공원의 2배 크기인 이곳의 공식 명칭은 '대한항공 숲'으로, 노천 광산에서 발생하는 석탄 분진이 인근 마을까지 날리는 것을 막아준다.

단순히 분진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 대한항공이 식림 전문가와 현지 수목 관리인, 상주 경비원을 고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생장률 95%의 상태를 유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숲에는 곤충과 새, 작은 동물들의 터전이 마련됐다.

숲에 심은 비타민 나무가 맺는 열매는 연간 1.4톤



대한항공이 몽골 바가노르구에 조성한 '대한항공 숲' 전경. 사진제공 대한항공

(t)에 달하는데, 대한항공은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의 숲 조성 행사는 양국의 우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2006년에는 몽골 정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녹지 조성 사업 평가에서 바가노르구가 우수 도시로, 대한항공 숲이 친환경 봉사활동 우수 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2009년에는 몽골 자연환경관광부로부터 '자연환경 최우수 훈장'을 받기도 했다.

신기술 발굴 지원 등 협력사 경쟁력 제고



LG에너지솔루션은 다양한 상생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우선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지원 제도 범위를 국내에서 해외 파트너사까지 확대했다. 단기 과제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현지화 기반의 밸류체인 구축, 신기술 발굴 지원 등 중장기 과제도 함께 수행한다. 금융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2020년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동반성장 투자지원펀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기초로 협력사에 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명절 전에는 조기에 대금을 지급해 원자재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파트너사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도 완화했다. 또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전경. 사진제공 LG에너지솔루션

해 하도급심의위원회를 구축하고 계약 전후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자체 내부 심의를 실시한다. 파트너사와의 분쟁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자율분쟁 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파트너사와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결과에 따라 파트너사가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Class가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 부문

- ①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 ②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③ 최적화 기술 1위 → 20,684,160 가지 스펙 초격차
-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제 우선 (본사 매장)
가격 영원 불변 정책



“시각장애인 축구선수 스포츠정신, 너무 큰 감동”

장혜선 롯데재단 이사장 인터뷰

시각장애인 대회 올해 첫 후원
장대비 속 경기 지켜보며 관심
“편견 극복하고 장애 인식개선
많은 이에 알리는 계기 됐으면”

전국 곳곳에 장대비가 쏟아지던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여성축구장과 시각장애인축구장에는 축구 유니폼을 입은 여러 선수들과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2024 롯데 전국 시각장애인 축구대회’ 개최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우산을 쓰고 단상에 선 장 이사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은 편견을 극복하고 스포츠의 활력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번 대회를 후원하는 이사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멋진 경기를 펼쳐달라”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굵은 빗줄기 속 공식 축사가 마무리됐음에도 단상을 내려가는 대신



장혜선(가운데)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이승훈(왼쪽)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22일 '2024 롯데 전국시각장애인축구대회'에 참석해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개인사를 언급하며 선수들 격려에 힘을 실었다. 장 이사장은 “저희 집안은 유별나게 운동신경이 없다”면서 “특히 저는 평지에서 도 잘 넘어지는 등 운동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 (운동) 잘하는 사람이 부럽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분들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며 “저에게는 여러분이 정말 멋진 분들”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실제 장 이사장은 이날 선수들에게 본인을

직접 소개하고 한 명 한 명 악수로 격려했다. 또 이날 장대비가 내리던 중에도 첫 경기로 치러진 전맹부 4강 경기(FC CNB 전맹축구클럽 대 프라미스랜드)를 끝까지 관람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장 이사장이 이끄는 롯데장학재단은 올해 4월 ‘신격호 사랑의 장애인 지원 사업’ 일환으로 대한장애인축구협회와 사업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애인 축구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전달했다. 그

동안 롯데재단은 농구와 축구, 스키 장애인리그를 후원해왔으나 시각장애인 축구 대회 후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각장애인 축구는 장애인 축구 종목 가운데 유일한 패럴림픽 종목으로 활성화돼 있다.

8개 팀 70여명 선수가 참가한 대회는 전맹부와 약시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맹부 경기는 방울이 삽입돼 소리가 나는 공을 사용하며 골키퍼(일반인)를 제외한 모든 선수는 아이패치와 안대를 착용해 눈을 가린 채 경기에 임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회에서 화성시각축구단(전맹부)과 충북이글FC(약시부)가 우승을 거뒀다. 준우승은 프라미스랜드(전맹부), 서울 저시력축구팀(약시부)가 차지했다.

이날 기자와 만난 장 이사장은 “처음 시각장애인 축구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미팅을 하게 됐고 이후 영상을 접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감동이었던 것”이라며 “외부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스포츠정신을 보여준 선수들의 노력을 저희의 후원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배근미 기자 athena3507@

기사판

‘올해의 여성발명왕’에 정운영 대표

특허청 주관으

로 20~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 열린 세계여성 발명 대회에서 ‘필터 없는 공기청정기술’을 개발한 정운영<사진 오른쪽> 위터베이션(한국) 대표가 ‘올해의 여성발명왕’으로 선정됐다. 특허청은 세계여성발명대회에 출품된 20개국 400여점을 심사해 그랑프리 1점, 세미그랑프리 5점, 특별상 40점 등 46점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랑프리 수상한 정운영 대표의 필터 없는 공기청정기술은 원시력을 이용해 물을 공급하고, 물을 작은 단위로 분사시켜 공기를 정화하는 기술이다.



현대백, 다문화가정 지원 목소리 기부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 프홀딩스는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목소리 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목소리 기부는 음성이 담긴 동화 오디오북(소리책)을 제작하는 것으로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등 그룹 임직원 60여명이 참여해 24권의 동화책 낭독을 녹음한다. 제작된 오디오북은 한국 가족센터 협회를 통해 전국 83개 가족센터에 전달된다.

우리금융, 자립준비 청년 생필품 지원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보육 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위풍당당 자립 키트’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키트는 자립 생활 안내서와 생활 필수품, 가전제품 등으로 구성됐다. 재단이나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전국 17개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서 신청하고, 택배로 거주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인사교류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장 이규호

◆국도교통부 ◇실장급 전보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대변인 박지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강주엽

부음

▲민화식(전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장) 씨 별세, 최춘자 씨 남편상, 민병우(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동부지사장)·지영·혜경 씨 부친상, 조성천(현대차증권 책임매니저)·신준현(신준현신경과 원장) 씨 장인상, 오현주 씨 시부상 = 2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2-2258-5940

▲박성기(전 쌍용자동차 상무) 씨 별세, 박상용(KBS 감사실장)·상진(특허법인 태평양 변리사) 씨 부친상, 장경아 씨 시부상 = 2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5일 오전 6시 20분, 02-3010-2000

함영주, 홍콩 이어 호주서 ‘K-금융 밸류업’ 행보

<하나금융그룹 회장>

IR 열고 현지 투자자와 소통 주주환원·ESG 성과 등 설명

함영주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호주투자설명회(IR)에 나섰다. 함 회장이 호주를 찾아 투자 설명회 행사를 가진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력 확대와 오세아니아 지역 투자자들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호주 IR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21일 함영주 회장은 캔버라에 소재한 호주 재무부를 방문, 기후에너지 총괄인 알렉시스 차관보를 만나 ‘그린뱅크’ 등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녹색금융 투자와 민간 기업들의 ESG 경영 모범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녹색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투자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콩 IR 일정을 마친 직후 호주로 이동한 함 회장은 그룹의 주요 투자자들은 물론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한국 금융주에 관심이 높아진 유력 투자자, 그룹의 ESG 경영을 주목하는 호주 재무부 고위 당국자 등과의 릴레이 미팅을 이어갔다. △그룹 전략 방향과 주주환원 정책 △한국과 호주 현지의 ESG 경영 성과 △K-밸류업 프로그램을 직접 설명하는 등 글



함영주(오른쪽)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호주 재무부 기후에너지 총괄인 알렉시스 차관보와 함께 녹색금융 협력 방안과 관련한 미팅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로벌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섰다.

함 회장은 “밸류업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 확립과 주주환원 확대로 기업의 가치를 키우고,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 이어 “하나금융그룹은 강점인 비용 효율성과 자산 건전성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뤄냈고, 앞으로도 효율적 자본관리와 주주 친화 정책으로 주주 가치를 키워나가 K-금융을 대표하는 밸류업 모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jsw@

한경협, 내일까지 대학생 기업가정신 캠프 ‘비전-프리너’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대학생 기업가정신 캠프인 ‘2024 비전-프리너 캠프’ (비전프리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전프리너 참가자는 한경협이 운영하는 대학생 경제교육 프로그램인 YLC(영리리더스클럽) 수료생 중 선발된 대학생 200명이다. YLC는 2002년 제1기로 시작해 2024년 45기 현재 대학생 29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캠프에서 최고경영자(CEO) 특

강 연사로는 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와 안세진 롯데미래전략연구소 대표가 ‘나의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특강에서는 ‘창의력’과 ‘실패하며 성장하기(Failing Upwards)’가 기업가정신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될 예정이다.

비전프리너 프로그램은 △CEO 특강 △초등용 기업가정신 수업자료 제작 △경제 골든벨 △지역을 넘어선 네트워킹 △미래내일 일경협 프로젝트 발표회 등 유익함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구성된다. 김민서 기자 viajeportune@



23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비전-프리너 캠프(Vision-Preneur Camp)’에 참여한 대학생 200여 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경제인협회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 임원과 사이서 3번째 아이”

美매체 보도…자녀 모두 11명

일론 머스크(52·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회사 임원과의 사이에서 세 번째 자녀를 얻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제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가

올해 자녀 1명을 더 얻었다. 해당 기사는 “당신이 더 많은 아이를 갖기를 원한다”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와 뉴럴링크의 여성 이사 시몬 질리스(38)가 슬하에 세 번째 아이를 얻었다고 전했다.

앞서 두 사람이 2021년 쌍둥이 자녀를 낳은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세 번째



자녀는 생후 10주 만에 사망한 바 있어 아이에 관한 보도는 처음이다. 다만 해당 기사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났다는 얘지만 담겼을 뿐, 더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매체는 머스크가 올해 얻은 이 아이가 그의 12번째 자녀라고 전했다. 머스크의 첫 번째 자녀는 생후 10주 만에 사망한 바 있어 이

아이에 관한 보도는 처음이다.

다만 해당 기사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났다는 얘지만 담겼을 뿐, 더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매체는 머스크가 올해 얻은 이 아이가 그의 12번째 자녀라고 전했다. 머스크의 첫 번째 자녀는 생후 10주 만에 사망한 바 있어 이

매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재 자녀는 총 11명이 된다.

질리스는 이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고, 머스크는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첫 부인인 작가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서 아들 5명을 뒀고,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한 뒤 교제한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 2명, 딸 1명을 뒀다.

김효숙 기자 ssook@

김정례 칼럼



칼럼니스트·前 부산고대 교수

헌정 질서가 교란될 듯하여 우려스럽다. 현 상황은 쿠데타나 무리한 개헌에 따른 과거의 헌정 파괴는 아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에 입성하고 거대 야당 대표가 되어 본인의 사법적 방탄을 위하여 지난 정권 이후 벌어진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관의 정치 편향적 판결로 사법부 위상을 훼손하는 행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 지연 방조, 법원장의 재판부 병합에 따른 재판 지연 조장, 전직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몇 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와 그를 추종하는 법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본 칼럼은 이를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므로 다시 다루지 않겠다.

정치의 사법화는 절대 해선 안 될 정치적 사안에 합법의 외피를 씌워 합리화하려는 행태를 말한다.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파국을 유도하는 국가적 패악이다.

그 원천은 오래전 수도 이전,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입법상 ‘민주적 통제’를 내세운 작금의 정치의 사법화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적 원리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법치,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대의민주주의 등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력화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첫째, 거대야당의 정치적 선행에 따라 기획한 마땅치 않은 법을 만드는 입법 폭주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여 정국 불안を 낳게 한다.

둘째, 예외적이어야 할 특별법과 특검의 남발이다. 그렇게 되면 예외가 일상이 되고 모든 일상은 이례적 상황으로 변질되어 법체계가 붕괴한다.

셋째, 탄핵 남발이다. 야당 눈에 거슬리는 검사, 판사,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탄핵이 문제다. 피고인이 해당 검사, 판사 탄핵을 주도하는 꼴이다. 이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의 국해다. 국회와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다. 열성 당원 직접 참여, 대의원 무력화를 넘어 법관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및 검찰청 해체를 입법하겠다는 것은 ‘인민’ 없는 인민민주주의의 극악한 폐해를 답습하지는 것이다.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제1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반쪽 국

요 공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이 조항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정치의 사법화에 해당한다.

사법의 정치화는 김명수 체제가 들어선 후 특정한 사법부 흑역사 주역들이 저지른 행태이고,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인, 특히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한다. 무엇보다도 전자는 사법 체제의 정상적 운영을 흐르는데 그치지만, 후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전반적으로 교란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특정 의원들이 정치의 사법화를 획책하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 즉 연금 개혁, 방폐장, 저출산 대책, 각종 규제 완화 관련 입법은 아예 방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하여 애완견 논쟁을 불붙였다. 우선 언론 길들이기 유혹에서 언론법 개정을 통한 정치의 사법화가 다급해져 결국 ‘인지부조화’ 발언까지 한 ‘개판 정치의 장본인’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당 일극 체제를 옹호하는 친명 인사들과 더불어 정치의 사법화를 주도하는 판·검사 출신 야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충성 경쟁하는 애완견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다가오는 새 팬데믹 적극 대비를

얼마 전 미국에서 무시무시한 뉴스가 들려왔다. 치사율이 52%에 달하는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바이라스가 인간 수송체에 결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때가 인간 사이에 대유행을 하게 될 시기이며 “이는 시간 문제”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2003년부터 꾸준히 인간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근래에 이르러서는 감염 사례 내의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보건회의 의장 제프리 파라는 이와 같은 전염병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언제 글로벌 에피데믹(epidemic)으로 퍼질지 예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전문가들, 4~5년 주기로 팬데믹 전망

국내에서도 이러한 뉴스가 전해졌지만, 의외로 대중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양새다. 소식을 전하는 뉴스 동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반응이 시큰둥하다. 아무래도 ‘52%’라는 중세의 흑사병을 넘는 치사율이 현실적으로와 닿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모든 위기가 그러하듯, 직접적으로 닥치지 않으면 체감이 되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보건학계에서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의 대유행이 4, 5년 주기로 꾸준히 일어날 것이란 이론이 거의 정설로 안착된 듯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겪어 온 글로벌 에피데믹이 이를 증명한다. 1997년 중국 남부와 동남아 일대를 강타한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2002년 아시아를 휩쓴 사스(SARS),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MERS), 그리고 2019년 코로나19의 사례들이 그렇다.

전염 지역과 기간, 치사율 등은 상이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글로벌 에피데믹, 혹은 그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팬데믹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치사율 52%의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이 다소 비현실적인 뉴스를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몇몇 학자들은 이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의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전염 지역과 기간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여

전문기자의 눈

김성희
전문위원·언론학 박사

기에는 몇 가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사람들 간의 초국가적인 이동과 접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감염균의 세계적인 전파도 용이해진 상황이다.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환경 파괴가 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해 철새나 야생 박쥐 등의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인간이 키우는 가축과의 접촉이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신종 호흡기 질환 감염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지구 표면의 온도 상승으로 감염균이 장시간 사망하지 않은 채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전하자면, 이러한 전염병 대유행의 위험이 증대하는 가운데, 인간의 대처 능력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데이터 수집을 통한 각종 전염병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 또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 사례를 전수조사하면서 또다시 찾아올 글로벌 팬데믹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英·美 등의 백신 개발 추이 따라가야

이들은 글로벌 팬데믹이 언제가는 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시간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보건 관련 인공지능 기술 또한 같이 발전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몇 년 후 다시 글로벌 팬데믹이 터지면 이들은 막대한 부를 쌓을 것이다.

이렇게 세계 선진국들이 벌써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유독 조용한 국가가 있다. 바로 지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홍역을 치른 대한민국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끝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다음 병균이 등장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후수가 나기 전에 제방을 쌓듯, 서서히 전염병 대유행과의 지리한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반복되는 ‘물가는 가리고 아웅’

‘치킨, 초콜릿, 김, 간장, 참기름, 올리브유, 햄버거, 콜라...’ 4월 총선이 끝난 후 식품·외식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 계획을 밝혔다. 대강 떠올리게 이 정도고, 소비자 모르게 슬쩍 가격을 인상한 제품이나 외식 브랜드까지 더하면 셀 수 없이 많은 품목의 가격이 올랐을 것이다. 가격을 올리는 기업들은 대부분 그 원인으로 원자재를 지목한다. 원자재값이 뛰어서 생산단가가 높아졌고, 이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기후 변화나 코로나19 이후 산업 구조가 바뀌며 코코아, 커피 원두, 올리브 등 적지 않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사실이다. 하지만 회사 대부분은 이런 가격 인상을 고려해 원재료 가격이 저렴할 때 미리 사 비축하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가격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최근에는 가격 인상 행태가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업체들이 계획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롯데월드가 대표적이다. 롯데월드는 코코아 가격 인상이 장기화하면서 초콜릿 제품 가격을 5월부터 평균 12% 올리기로 했으나, ‘가정의 달’인 점을 고려해서 한 달 미뤘다.

노트북 너머

김지영
생활경제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도 가격 인상 계획을 두 번이나 미뤄 비판이 일었다. 물가 안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시점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각 8월, 4월 미룬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들 업체는 ‘물가 안정 동참’ 구호를 내걸었지만, 결과는 길어야 한 달 수준인 유예 기간에 불과했다. 결국, 조삼모사에 불과한 정해진 결말인 셈이다.

이런 다소 어처구니없는 선택의 기저에는 정부의 의지가 깔렸다. 정부는 매달 소비자물가를 조사해 발표하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상승 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당장 물가 통계에 잡히지 않기 위해 공여지책을 쓴 것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공여지책일 뿐이었기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에 불과하게 됐다. 당장 오늘 물가는 잡았을지 모르지만, 내일 물가는 더 튀어 오르는 어이없는 결과만 낳았다.

kij42@

이투데이, 말투데이

☆ 고탐 아다니 명언

“창업가는 끈기를 시험하는 나의 꿈의 직업이다.” 인도의 억만장자 사업가 아다니 그룹 창립자 겸 회장이다. 아다니 그룹이 나렌드라 모디가 인도의 총리가 된 후, 인도 국내외에서 수많은 에너지 및 인프라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정실주의 의혹이 있다. 2024년 현재 그의 재산은 미화 823억 달러로 추측된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62~.

☆ 고사성어 / 공생명 염생위(公生明 廉生威)

‘관리는 권력이 아닌 청렴에 두려워하며, 백성은 능력이 아닌 공정에 복종한다’라는 뜻이다. 명(明) 나라 시대부터 관리의 좌우명이었다. 순무(巡撫)를 지낸 연부(年富)가 쓴 관잠(官箴·지방 관리가 행정에 필요한 지식과 자세를 기록한 책)에 나오는

말이다. 관리들은 앞다퉈 이를 관아에 비석으로 새겨 공정과 청렴의 자세를 다잡았다. 시진핑 주석은 반부패 메시지에 활용했다.

☆ 시사상식 / 그린 메일(green mail)

기업 사냥꾼이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도록 보낸 편지다.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초록색 ‘달러(돈)’를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고 이들을 그린 메일러(green mailer)라 부른다. 이들은 자산 가치가 높거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활동한다. 이런 상장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경영진에게 메일을 보내 위협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포기 대가로 자신들이 확보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값에 사들일 것을 제안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신뢰’의 결핍, 사회 만병의 원인

사회학자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경제적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으로 설명한다. 선진국은 사회적 자본이 발달하여 정부와 법을 신뢰하고 계약과 약속을 준수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사회 통합이 용이하다. 반면에 후진국은 사회적 자본이 미흡하여 정부와 법을 불신하고 계약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갈등과 대립이 팽배한 것이다. 한때 경제적 풍요를 구가했던 중남미 국가들이 빈국으로 추락한 것도 사회적 자본의 결핍에서 그 원인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위태로운 분기점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며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회적 자본은 여전히 부족하며 그중에서도 신뢰자본이 가장 열악하다.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갈등도 근본적으로 신뢰자본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사기 사건이 만연하다.

사기범죄는 한 해 30여만 건에 달해 발생 건수기준으로 부동산의 1위 자리를 차지한다.

정부불신도 심각하다. 정부 정책은 일관

성이 결여되어 신뢰받지 못한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혀 혼란을 초래한다.

법률에 대한 불신도 크다. 국민들은 법에 의해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지 않는다. 검찰은 권력에 휘둘리고 법원은 전관예우에 갇혀있다. 권력과 돈이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사기범죄를 키우는 양분을 제공한다.

가장 큰 불신을 받는 곳이 국회이다. 국회의원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국익보다 진영 논리에 충성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은 조롱거리감으로 전락했다. 여당과 야당이 협치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협치는 타협과 양보를 의미하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독박을 쓴다. 정치에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니 대화와 타협보다 힘과 대립에 의해 극한대결로 치닫는다. 최근 제22대 국회에서는 제1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증폭된 갈

논현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경영학



등과 대립이 정치권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확장되는 것이 박약하게나마 남아 있는 사회적 자본마저 증발시킬 사태로 우려된다.

우리 사회에서 신뢰자본이 결핍된 분야는 정부나 정치권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학계와 언론도 공정성을 상실하여 신뢰를 잃었다. 사회적으로 접하게 충돌하는 이슈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극렬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논리를 제공하여 중립적 해법을 모색하는 전문가 집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의 코로나19 예방대책이나 지금의 의대정원 증원 문제

도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주장이 상이하여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그런 전문가들이 나중에 정치권에 영입되어 비례대표 국회

의원이나 장차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시민단체가 최악이다. 이름은 시민을 위한 단체라 하면서 실제로는 단체 임원의 출세와 진영 대결의 전위대 역할에 충실하여 사회 통합보다 분열을 조장한다. 신뢰가 생명인 전문가와 단체가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은 존재 이유가 없어진 것과 같다. 그런데도 타락한 학자, 언론인, 운동가들이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며 출세가도를 달리니 개탄할 노릇이다.

경제적 자본은 외국에서 도입할 수 있고 재투자를 통해 짧은 시간에 축적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자체적으로 축적해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자본이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후진하여 중남미 국가처럼 추락하게 될 것이 심히 걱정된다.

신동현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국민 분열·갈등 극한대결로 치달아

국회 가장 심각...협치없이 일방독주

사회자본 복구 못하면 후진국 추락

노무, 특!

기일 정해진 휴가가 있다

얼마 전 모 회사의 인사팀장이 상담을 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이 나왔다 한다.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였다.

한 직원이 본인의 업무부담 때문인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7일만 신청하였고, 회사는 당사자가 적게 가겠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여 이를 허가하였다. 육아휴직 역시 휴직당 사자가 1년 미만으로 신청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동일하리라 생각했다 한다. 하지만 결과는 과태료 50만 원 처분이었다. 대체 육아휴직과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인가? 정답은 법령의 문구 차이이다.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

문에 휴직 신청자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업주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어떨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내'와 같이 당사자와 회사가 기간을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구가 전혀 없다. 법 문구상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10일을 줘야 하게 되어 있다.

배우자출산휴가처럼 얼마를 근로자가 청구하든 반드시 정해진 기일을 줘야 하는 휴가가 또 있다.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이다. 이 휴가 역시 근로자가 얼마를 청구하든 회사는 반드시 90일을 부여해야 하고 그중 출산 이후가 최소 45일이어야 한다. 앞으로 육아, 일가정양립에 관한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므로 유념해야 한다.

신동현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투기자본의 웅단폭격 위험이 커지는 국면에 우리 정치권이 기업생태계를 보호하기는 커녕 경영권을 흔드는 역주행을 일삼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립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격이다.

상법 발의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여러 변형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총주주'를 각각 추가했다. 소수주주 동의제, 다중대표소송제를 추진하는 입법 시도도 있다. '개미'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포퓰리즘 병폐가 짙으니 탈이다.

충실의무 대상 확대안을 보자. 수많은 주주가 다 이익 극대화를 바란다 쳐도, 단기 관점이나 중장기 관점이나 등의 잣대에 따라 이해관계는 엇갈리게 마련이다. 모든 주주를 만족시킬 결정이 어찌 가능하겠나. 대상 확대는 경영 부담을 무한대로 늘릴 뿐이다. '비례적 이익'도 공감하기 어렵다. 소액 주주 이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겠지만, 기본적으로 모호하고 법학자들에게도 생소하다.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은 피해야 마땅하다.

경영권이 흔들리는 기업은 안보가 불안한 국가

와 다를 바 없다. 우리 정치권이 민생을 챙기고자 한다면 서두를 것은 기업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아니다.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보호막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 기업생태계는 녹록지 않다.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 공격을 받은 국내 기업은 77개사로 2019년 8개에 비해 9.6배로 증가했다. 조사대상 23개국 중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따로 없다.

삼성물산은 지난봄 5개 펀드 공격을 받았다. 국내외 펀드는 5000억 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과 고배당을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방어에 성공했지만 여러 펀드가 늑대 떼처럼 먹잇감을 공략하는 '울프 팩(늑대 무리)' 전략은 갈수록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배전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프랑스 등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는 포이즌필을 비롯, 차등의결권과 황금주 등 '3종 세트'를 갖추고 있다. 군비경쟁 이치는 전쟁, 생물학, 시장경제 등에 두루 적용된다. 국내외 투기자본이 국내 알짜 기업들에 눈독을 들이고 날카로운 창과 칼을 휘두른다면 해당 기업들도 방패와 갑옷을 갖춰야 치명상을 피할 수 있다. 과연 현실은 어떤가.

정치권이 역주행을 하는 이유는 뻔하다. 반시장 정서의 결별을 꾀했다고 저 난리들이다. 하지만 국부와 일자리 원천인 기업들을 벼랑으로 떠밀어서는 안 된다. 만약 정확한 길을 모른다면, 한국경제인협회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제안했던 '전경련 모범회사법'을 참고할 일이다. 포이즌필 등이 왜 필요한지 쉽게 알 수 있다.

규제 자초하는 은행 횡령사고

또 터졌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 말이다. 과거 '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횡령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 웬만한 액수가 아니면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다. 임원도 지점장도 아닌 일개 대리가 100억 원가량을 횡령했다.

지키는 사람 열 있어도 도적 하나를 못 당한다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아무리 단단히 감시하고 문을 걸어잠가도 갖은 교묘한 수단을 다 하는 도둑을 막아 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횡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우리은행을 이 해하고 넘어가자는 말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지적하고 회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그럴 때마다 회사는 잘못을 해명하고,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면 횡령사고는 발생하고, 또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

내부통제 강화했지만 여전히 '허술'

그런데 이번엔 우리은행도 답답하다고 한다. 2022년 횡령사고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감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99.9%가 아닌 100% 완벽한 내부통제 달성을 위해 절대 경각심을 늦추지 말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횡령도 은행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적발됐다. 여신감리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해당 직원에게 소명을 요구하면서 횡령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그간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법과 제도를 마련하며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해 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횡령은 발생했다. 미국의 범죄사 회학자 도널드 크래시는 '부정 삼각형(Fraud Triangle)' 이론을 통해 횡령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횡령이 발생하는 데

마감 후

문선영
금융부 차장



는 △압박 △기회 △정당화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조직문화와 중요한 관련이 있다. 성과 중심주의 은행 문화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내부 통제 부재나 느슨한 관리 감독은 횡령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조직 내에서 비윤리적 행동이 관용되거나 묵인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는 횡령 행위를 '정당화'하는 요인이 된다. 결국 이 세 가지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반복되는 문제 발생에 법과 제도가 아닌, 금융회사의 조직문화에서 원인을 찾았다. 금융사 조직문화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금융당국이 개선 혹은 점검해야 할 조직문화 항목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제시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리스크 문화 평가를 수치화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문화 모델', 자율성 해칠까 우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조직문화라는 것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 금융회사별로 조직 내 공유되는 가치와 규범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모델화하고 수치화해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은행들도 이런 부분을 우려한다.

하지만 연이은 횡령 사고로 은행의 핵심 기반인 고객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은행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저 금융당국이 은행의 신뢰 회복을 담보로 또 다른 규제 탄생의 기회를 만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moon@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AAM[Advanced Air Mobility]
도심 내 또는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진

PBV[Platform Beyond Vehicle]
고객 맞춤형 다목적 모빌리티 플랫폼



새로운 공간경험이 펼쳐집니다

SPACE[Spatial Curated Experience]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다인용 공공 모빌리티

모빌리티 세상,
이동의 모든 순간에 편안함을 더하다

HYUNDAI
MOTOR GROUP

QR코드를 스캔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를 만나보세요

